朝鮮日報 夕刊 一日(木)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商工省明年豫算

【東京電話】 商工省에서는三十一日午後부터 豫算省議를 開하얏든結果 十一年度 歲入出豫算案을 決定하엿는데 大藏省에回附하기로되엿다 歲出總額은 二千五百七十萬圓中 新規要求額은 合計一千二百四十三萬圓으로되어잇다

英佛兩國의斡旋으로 妥協方式起草決定

伊代表議事範圍制限留保宣言에 英에代表反對를表明코論戰展開

和協委員會議事는繼續

리트비노프議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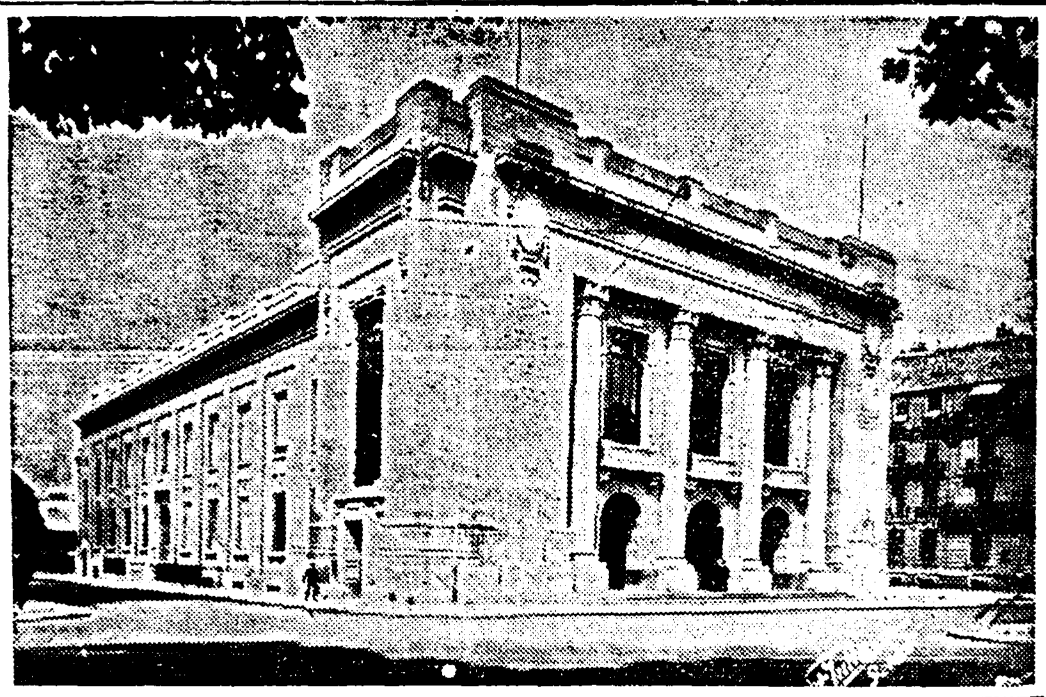
聯盟特別理事會遂開會

【電通주네브三十一日發至急報】 伊에紛爭에關한 第二次聯盟特別理事會는 三十一日午後五時十五分(日本時間一日午前一時十五分) 軍縮會舘에서 非公開로 開會되여 伊에紛爭의和協手段繼續을 可能케할 方式을 起草키로決定하엿다

【電通주네브卅一日發】 伊에紛爭을 協議키爲하야 臨時召集된 國際聯盟特別委員會는 三十一日午後五時十五分(日本時間一日午前一時十五分) 부터 約一時間半에亘하야 리트비노프議長 司會下에 非公開會議를 開하고 伊太利代表 아로이지男의 議事範圍制限 留保宣言과 에디오피아代表에ㅣ제쓰博士 英國代表 이든兩氏의 制限反對表明을 中心으로 俄然論爭이 展開되엿는데 라발佛首相은 그間을斡旋하야 結局兩當事國이다和協委員會의 講事繼續에는 反對意思업슴이 判明되엿슴으로 이一點을基礎로 英佛代表間에 今明日中妥協方式을 起草하고 伊에兩代表의諒解를 得한後 一日午後五時再次非公開理事會를開하야 그對策을 圖하기로 意見一致하고 玆에 理事會의 第一日을마치다 그리고 理事會散會後 直時리트비노프議長、이든英無任所相、라발佛首相、압놀事務總長의四人會議에 移하야 深更까지 妥協方針을 凝議하얏는데 右는 英佛伊를合한 一九〇六年條約을 巧妙히運用하고 和協委員會의 事業繼續에 從來보담도 一層强力한 英佛의壓力을 加味하련는 趣旨下에 起草되고 特別理事會決議形式으로採擇되기로 되어잇는것이다

【주네브三十一日發聯合】 理事會第一日의 會議後 左의콤뮤니케가發表되엿다 特別理事會는 三十一日午後非公開로써 開會、伊에兩國紛爭調停案을 上程하야 뭇솔리니首相의 和協手續續行案을 檢討하고 明一日午後公開會議를 續行할려인데 這間關係各國代表는 仲裁和協手續의 續行方式發見을 爲하야 努力할러이다

에디오피아의 經濟上及敎育上改革을 與키爲하야 國際聯盟及에디오피아皇帝連帶로 가장有能한米國人을 에디오피아 政府顧問으로任命할것이라고主張한것으로 全혀机上試案에不過한것이, 確定的形式으로報道된것으로보인다



特別理事會가열린 軍縮會議場

伊和協受諾하면 聯盟介入延期

四國代表의私的會談

【電通주네브卅一日發】 理事會를압두고 英國代表이든氏를 中心으로 英佛伊에代表間에 多邊的私的會談이 開始되엿는데 傳하는바에依하면 英國은 一九〇六年 에디오피아에 關한 英佛伊三國條約에 基하야 伊에紛爭의解決을 圖할意思로 私的會談에 잇서 今後一週間에 英佛兩國이伊太利를 說服하야 平和的解決을 受諾케할 可能性이 보이면 聯盟의直接介入을 延期하게할模樣이다

決議案四項起草

【주네브三十一日發聯合】 理事會散會後 리트비노프議長을 爲始하야 라발首相 이든無任所相은 압놀事務總長室에 集合하야 約一時間 協議를 遂하엿다 英、佛兩國代表는 理事會의 講事를 專히 和協委員會의 善後策에 局限하고 和協手續의 完了되기까지 軍事行動을 取치안켓다는 伊太利政府의 公約을 確保하고 理事會를 休會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는데 兩巨頭의 會談으로 벌서부터 理事會決議案의 起草에着手할것이라고 觀測된다 決議案은 四項으로되엿는데 大體 左와如한것이라고 推測된다

一、伊에兩國政府는 理事會의 決定에 基하야 今後 繼續하야 和協手續을 續行할것

一、和協手續이 進捗되는동안은 兩當事國政府는 모도 戰爭行爲에 訴치안을것을誓約할것

一、和協委員會에 對하여는 中立國의 第五委員을 任命 委員會는 九月二日까지 報告書를 理事會에 提出할것

一、英佛兩國政府는 一九〇六年 八月의 三國條約에 基하야 和平解決을 爲하야 斡旋할것

야서 戰爭勃發을 阻止하려는 것이 그骨子로 聯盟規約第十五條 其他條項의 發動으로 聯盟과 伊太利와의 間을 疎遠케하는 危險을 避하고 主로 英佛兩國의 調停的斡旋下에 伊、에 兩國의 和協交涉의 再開를 圖하려는 것으로 적어도 八月二十五日까지 또는 될수잇는대로 그以後에도 聯盟으로하여금 實質的介入을 不得已하게 하지못할 線을 敎하게된것이다

和平解決繼續코 戰端開始阻止

聯盟規約十五條發動은回避 英佛代表의和協方式

【電通주네브卅一日發】 伊에紛爭和協事業 六項方式을 起草하야 一日特別理事會의 第二會議에提出하기爲하야 佛代表 라발首相 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과는 三十一日 理事會 開會直後 理事會議長 리트비노프 蘇代表 아브놀事務總長과 함께 四人會議를 開催하고 新妥協案의 作成을爲하야 約三十分에 亘하야協議한後 다시라발佛代表와 이든英代表는 深更까지 草案作成에 努力하엿다 確聞하면 新和協方式은 라발首相이 아브놀 事務總長의 巴里滯在當時 비로소原案을 作成하엿다 그後 이든英國代表와의 妥協으로 漸次그 內容을 加除하야 作成된것인데和協委員會의 主體를 兩當事國의代表로 하지안코 一九〇六年의 條約에基하야 英佛伊三國이 活潑한 干與를 此에 加하야 和平解決交涉의 即時開會를 促하

伊에兩國代表 長時間동안密議

【주네브三十一日發聯合】 伊太利代表아로이지男은 三十一日夜 에디오피아代表 지에스敎授와 會見하고 長時間에 亘하야 商議를 遂하엿는데 和協委員會의 善後策에 對하야 懇談한것이라고 解釋된다

議題範圍不局限과 戰爭不爲의確約

伊代表에提示한佛草案內容

【電通주네브一日發】 三十一日夜半에이르러 英佛會談에잇서서 이든英代表는 新和協方式인 理事會決議草案에 幾多의修正을 加하엿는데 確聞하면 氏는倫敦政府가 妥協한後다시修正을 追加할수잇다는 旨를 留保하엿다한다 그리고 右會談後 今朝 佛首相이 伊代表에게 內示한 草案에는 다시 左와如한 重大한 條項이 包含되여잇다한다

一、和協委員會의第五의 和協委員의任命

一、一九〇六年條約調印國及 에디오피아의 急速한交涉의開始

一、右交涉에잇서서議題範圍의 不局限

一、再和協交涉期間中 戰爭手段에訴치안을것의相互的確約

松岡氏總裁起用 滿鐵社內서歡迎

【大連一日發聯合】 滿鐵總裁更迭에對하야 本社首腦部를 爲始하야 四萬의全社員은 政府가無理업는 合法的改組를 斷行하려는 前提이란點을 確認하는 同時에 後任總裁로써副總裁의 經驗잇는 松岡氏를 起用하는것은 現下日滿情勢에徵하야 가장適任이라고 就任後의 滿鐵前途에 多大의期待를두고 只今부터 크게歡迎하고잇다

後任副總裁에 宇佐美氏有力

【東京電話聯合】 卅一日滿鐵總裁就任을 內諾한 松岡洋右氏는副總裁人選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考慮中인데 目下下馬評에 오르는것은 現滿鐵理事兼鐵路總局長 宇佐美寬爾、貴族院議員大藏公望男、對滿事務局次長川越丈雄等諸氏이다 그리고 川越氏에 對하야는 全혀政府側이推薦한것인데 同氏가 副總裁就任한다면 過般在滿機構問題의 責任으로 拓務次官의 職을 辭한 坪上貞二氏를 事務局次長에 推薦할여고하며 大藏公望男은 過去의閱歷手腕으로 嘱望되여잇다 松岡氏自身의 意思는 宇佐美氏를 社內로부터 拔擢할여는模樣이다

人事・集會

▲池淸氏(遞信局保險運用課長)新任人事次一日來社

▲渡邊[illegible]郞氏(遞信局監務課長)同上

移民制限法案 蘭印政府서提出

【電通바타비아三十一日發】 蘭印政府는 三十一日勞働移民制限法案을 國民參事會에 提出하야 來八月二十日까지에 討議를 終了할것을 要請하엿다 右는 勞働移民의 入國數를 各國別配定으로써 制限을 圖하는것으로、이것이 實施되면現在約五萬四千人의 移民을 擁한 日本에對하여는 重大한 影響을 주는것으로 同法案의推移는 重視되여잇다

二重政策을繼續? 日中親善에轉向?

六中全會를압두고南京歸還에따라서 蔣介石氏歧路에直面

【南京一日發聯合】 目下靑島에서療養中인 汪精衛氏는 其後經過가 良好하야 八月末에 歸京할 豫定인데 蔣介石氏도 八月下旬 乃至九月初旬에는 四川을出發하야 오래간만에 南京에歸還하야 第六中全會를 압두고 汪精衛氏를爲始하야 中央要人等과 對日新對策樹立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行하리라고觀測되다 그리고 蔣介石氏는 過般에會見한 黃紹紘 蔣作賓氏等의 進言를容認하야 從來의 對日二重政策을 抛棄하고眞正한 日中提携를 決意한것이라고 傳하는側도 잇는데 蔣氏 現在의心境은 『僞親善』이나 親日에로의 轉向이냐 라는 重大岐路에서 彷徨하고잇다고보는데 蔣氏의 南京歸來는 兩者中 하나를 決議한것을 表明하는것이라하는바 그態度는各方面에서 注目되여잇다 (寫眞은 蔣介石氏)

陸軍大異動發表

八月一日附正式發令

【東京電話聯合】 去七月二十二日內命을 發한 陸軍定期大異動은 마침내 八月一日午前十時 陸軍省으로부터 發令되엿다 今回의 異動은 勅任四十七名 進級一千七百名 待命二百六十名에 達하는 近來에드믄 大異動이다

八面鋒

◇國際聯盟理事會에서『에디오피아』를 聯盟에서 管理하야 統治하자고。

◇聯盟自體의 統治가 疑問인 오늘날에、무슨힘으로 남의나라를 統治하라는고。

◇에國陸相의『오즉 죽엄이잇슬뿐이라』는 絶叫는勿論、伊太利側의 反對도 이點만으로는 當然한일。

◇比律賓을 새에두고 米國이 日本에 對하야 貿易上의 紳士協定을 要望。

◇利害關係를 自覺的良心에 依하야 自制하는것이 紳士의態度라하면、今日의 貿易戰勢가 果然 이를許諾할가。

滿洲大移民計畫 具體的協定進行

政務總監急遽渡東은이까닭 아즉迂餘曲折은未免

總督府의滿洲大移民計畫은 明年부터 實施하고저 方今田中外事課長이 渡東하야 各方面과折衝中인데 移民會社組織에 關한 根本案은 決定되엇스나 事務的細目決定에는 여러가지 技術的難關도 不無하야 昨日今井田政務總監이 急遽渡東하엿다 그런데 一日에는 다시 田中外事課長의 招電에依하야 拓外事課事務官은 移民計畫關係의重要書類를 携帶하고 一日 午後三時車로 渡東하엿다 移民計畫에잇서 會社組織案은 決定하엿스니 新會社創立과 同時에 問題되는것은 現 移民代行機關인東亞勸業會社의處置問題로 此會社는 元來 滿鐵系의農業土地經營會社로 兩者의關係와 處置에對한 關東軍案 滿鐵案 總督府案等 區區하야 細目全部의具體的協定은 아즉相當한 迂餘曲折을 지난後가아니면 最後決定이 困難하다고한다

國際管理說은私見

【電通倫敦三十日發】 에디오피아에 委任統治制度를 施行하고歐洲各國의 國際管理로하려고 에디오피아皇帝하일세라시에一世陛下에게 提示하얏다는 報道가 行하여 各方面에서 異常한 關心을 깁게하얏는데 그提出者로 指目되는 英佛政府는 다 如斯한意見을提出한바업다고 表明하야 此를 否定하고잇다 消息通의 解釋에依하면 如斯한 報道가行하게된것은 英國奴隸制度撲滅會會長노엘박스톤男 同書記長사샤로하리兩氏가 先日倫敦타임스紙에 寄書한 에디오피아問題解決에關한論文中에

閑題非閑 (三)

暴風과海國殘生

─風災防禦陣設施議─

安在鴻

× 京江의 大水災가 다행히多數人命을 傷하지안코 그대로平定되엿다 不幸中다행이라할것은 이를두고 말함이다 그런데 京江의大水害가 갓가스로平復된後 열흘이 채못되어 鴨綠江의 六十年來의 氾濫으로 新義州 安東縣에水亂이 일어낫고 威化島 柳草島 等江中의섬들에는 數千의 災民을내엇다 걱정스러운일이다 水災는 天然의威力이라 人力의 미치지못하는바도잇고 治山治水의고루이룸이 혹 그暴威를和할수잇고 또는災害는 허렴업다손 치더라도 災害를 未然에逃避하는 救濟의 陣이라도 잇서야하는것이니 近日『水防陣』의 熱語를 흔히듯는것은 이까닭이다 水防陣은 매우조흐니 協力하야 그徹底를 期할것이다 그러나 風水災는 딸어닷는것이니 水亂中에도 가장 怯내든것은 颱風이 올는지할까함이어서다

× 朝鮮은 天災에는 종有福한셈이니 大震災大風災가 남처럼 만치안흔것은 天然地理上의 뚜렷한 幸福이다 그러나 半島의나라로 三面이 바다이오 南支那海에서 不時에 닥겨드는 颱風은 장마철의 必須條件인 貿易風의 뒤를좃처 가끔가끔 東南西 海岸地帶에 노략질치는것이다 往年 東海岸의 颱風과 昨年度의 黃海一帶의 颱風은 陸上에서도 限업는 그暴威를 뵈여섯지만 海上의 人民들에게는 形言못할 殘虐을 그生命財産의우에 발뮈엇(逞)스니 昨年度의 德積島를 筆頭로 千餘의 船隻과 五百餘人의 壯丁을 바람바다의 魔의 아가리에 녹여버린것은 지금에도 그때일을 記憶이 새로운바이다 하로낫 하로밤동안 意味업든 때엇음을 눈뜨고처다보고잇슴이 이미큰 人世의慘劇이련든 하물며 각각그한집안의 大小家族과 一般家計를 넘어가는 壯丁인戶主를 一時에 일허버리고 數百數千의孤兒寡婦의 새로운 生活의 敗殘軍으로되는것은 첫재 人道의痛恨事이오 그리고도 國家社會의重大한 創痍인것이다 그러나 이제껏筆者가 아는限에는 風害防守陣의 設施는거의업는것갓고 잇더라도 너무貧弱한것이다 이는 各界當任者와 一般議者들의 重要한 關心事의 하나이어야한다

× 現代의科學은 아즉도 颱風의 發生을 막어내지 못하고 비가오고개는 天氣의 預報는 꼭꼭들어맞지못하는것이라도 暴風警報 가튼것은 거의例外업시 맞는터이오 또通信의迅速은 그風速보다 여러時間압서 이것을 海上에報道할수 잇는바이니 이것을指令部로삼어 海上警制의 防陣을 느릴수 잇지안흔가? 大風은 원낙 막을길 업지만 바람에限하야는 도망할이 第一이다 (一) 暴風警報의 測候設施를 보담더 完全히하고 (二) 瀕海各地의 警察署와 駐在所에는 이에關한 聯絡과그 設施를 一層緊密迅速하도록하되 (三) 그附近의高峰으로 멀리海上에서 바라보이는 位置에는 信號旗의 揭揚에 쓰는 數百尺의 塔과장시대를세워 風信의 記號도보내고 (四) 혹은 漁船의 集散이 동떠게만흔 고장에는 輕氣球를 最高까지띄워 이를傳達할수도잇고 (五) 財政의 許하는限에 數百隻中의主要한 指定者의 船舶에는 라디오갓흔 無線電의 施設을强制하야 警報가갈때 차례로 一般에게信號策動하는 規制를 세워實行할수잇슬것이다 近者爲政當路는 農村振興의 때문에 各郡島에 國費職員 百十名을 더둔다는 消息이잇다 振策은 그施設을 未然에 막음에서 비롯하여야 할것이니 혹 人보담압서 이미 籌備함이 잇는가? 이는 누루 閑題로써 律할者決코아니다

國體明徵問題에 正式聲明을要求

陸軍主張과다르면獨自的으로聲明

軍部의對政府態度强硬

【電通東京電話】 國體明徵에對한 陸軍의主張은 大體政府에서 容認하게되는模樣인데 陸軍으로서는 本問題에關한限 다시 政府에對하야 全幅의信賴를 할수업다는 것이本心이다 그때문에 林陸相以下 首腦部는 聲明問題에對하야 最後까지 嚴重監視를行하야 萬一陸軍의 主張과 다른經過와 結果를 보면 陸軍獨自의 立場에서 所信에向하야 單獨邁進할 決心인데 三十一日午前 非公式軍事參議官會議에잇서서 林陸相으로부터 全參議官에게 이決心을 披瀝하엿다 그리고 陸軍에서는 最惡의境遇에잇서서 陸軍이取할 方針에對하여는 벌서부터 主務機關에서 研究하고잇는데 爲先 第一에 陸軍의입장으로 正式機關說反對의 聲明을 全國에聲明하리라고 信한다 그리고 機關說反對聲明의 形式에對하여는 政府는內閣 又는 政府의 名義로의 正式聲明을避하고 岡田首相談으로써 發表할 方針이라는 說도잇다 陸軍에서는 如斯한形式은恒常新聞에 揭載되는 岡田首相談과 거이다를것이업다고 反對하고잇는바 그形式에對하여는 問題의 如何를不問하고 當然히政府에 正式聲明의 形式을 取하야 各省을通하야 此를全國에配布할것이라한다

洋劇專門 浪花館

八月二日より 當館超特別大興行 待望二年鐵鎖の如き難關を突破し遂に大封切!! 玆に見るは有ゆる女王映畫を淸算し傲然君臨する往年の名畫『モロッコ』の世界的名コンビスタンバーグデイトリツヒが築く永久不滅の燦たる映畫藝術の極致!!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カレツヂリズム 監督 ノーマン、タウログ 主演 ジヤツク、オーキイ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戀のページエント 監督 ヨセフ、フオンスタンバーグ 主演 マレーネ、デイトリツヒ

巨匠スタンバーグと妖姬デイトリツヒの世界的名コンビの再現によるロマノフ王朝華かなりし頃の豪華壯麗カザリン女王の情熱を傳へる絢爛の大繪卷!!

麻浦桃花洞 電龍 三三 桃花劇場

八月一日봉브러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합니다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映畫 西部大活劇 爆彈존스 全七卷 監督 람바트・히리야氏 主演 박크・존스氏 다이아나・신크레아孃

大都映畫社超特作無聲映畫 現代大活劇 曉の超特急 全七卷 監督 大江秀夫 主演 日本달막치 琴路美津子孃

◇엘모리에부社特作品 戀愛活劇 가니발祭의小兒 全五卷 監督 主演 모지유진氏

全鮮映畫殿堂第一 電光 九六九 團成社

八月二日부터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映畫鑑賞은 어제든지第一級名作封切 團成社에서

▲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사랑의레젼드 要셉、폰、스탄빠―그監督 마르데느・떼트릿히主演 로마노쭈王朝빗나든때의사랑女王을둘너싸고宮廷西班牙의王子들의情炎秘史!

▲파라마운트特作日本版 大學의리숨 다니엘、쭈、머너、작크오―키―主演 大學의리슴그대로百貨店經營을하여본다면어럿한것이란가!

▲第一映畫全發聲映畫 お六櫛 正木不如丘原作 伊藤大輔監督 山田五十鈴、夏川大二郞、中野英、治月田一郞、歌川絹枝主演

鍾路 電光 三六 朝鮮劇場

八月一日낫부터三日間每日三回 正午十二時 三時半 八時 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코롬비아映畫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비타―샤킹 監督 사랑의하로밤 (一名戀の一夜) 크레스―무―아孃 主演

◎松竹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時代劇 怒濤에騎士 監督 井上金太郞 主演 林長二郞외

後告 朝鮮名劇 仁寺洞 戰時特派員 크레오파드라

新案特許 興字標打綿機元祖

京城生產品評會優秀賞牌 朝鮮博覽會優秀賞牌 受領

興字標最新型倍轉式打綿機械 興字標最新型操綿機械各種

本機特色 絶對他機械의 倍勝無比한 本機械 奸商類似商標를 絶對注意함 (카타로그進呈)

登錄 商標

興字標打綿機製造所 京城府昌信洞一三一五番地 電話(光)一二六六番 主 李重宜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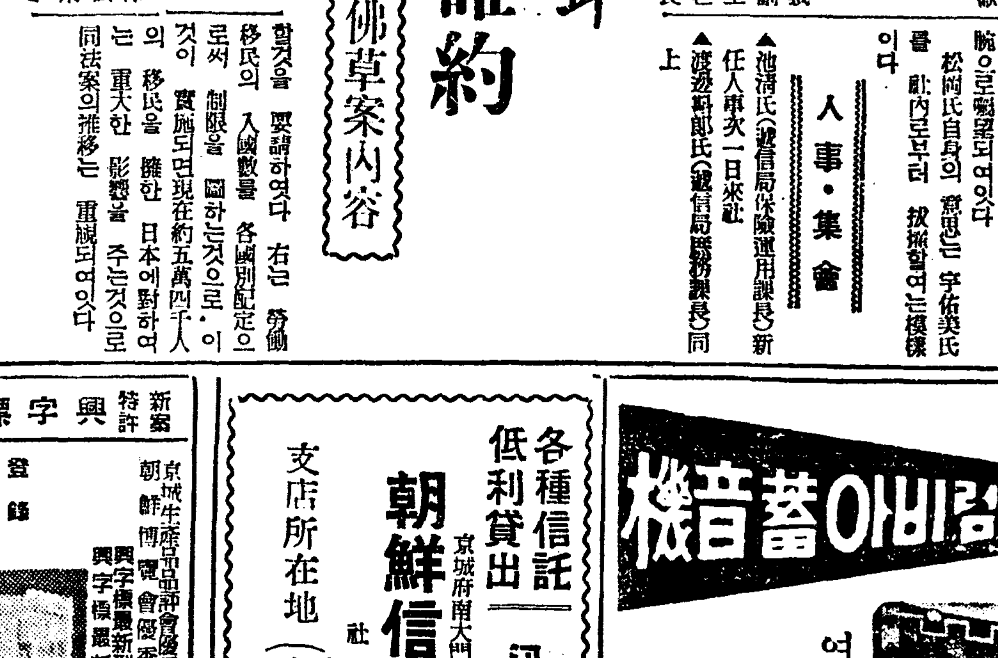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콜럼비아레코―드 콜럼비아蓄音機

樂器界의重鎭이고 樂器店으로元祖인 平壤南門通 常信樂器店

여러분들의 試聽室로!! 오시여試聽하시요!!

平壤鍾路 常信樂器店 電話一七三番



(平壤鍾路 常信樂器店 寫眞은)

浸水家屋七千餘戶
減水後가一層念慮
鴨綠江沿岸被害漸次判明
柳草島住民은救助

【卅一日午後十時半警務局着電】 명록국경일대의 이번 수해의 피해상황으로 지금까지 (三十一日午後九時現在)의 현재는 다음과 갓다

一、人畜被害 人死－朔州三 滿浦二 累計六

一、家屋被害流失－朔州三 累計八二 倒潰－玆城六 渭原一 半潰－玆城一六 定州三 累計三七 浸水－玆城三四 渭原一七 朔州二五 定州三三〇 新義州一〇 累計七一七

一、橋梁流失 渭原一 朔州二 新義州一 定州四 累計一八

一、압록강하류 류초도(柳草島)는 극히 위험하엿스나 경비선 기타의 구조에 의하야 륙백명을 구출하고 청장면(靑壯面) 만은 안전한 농가에 피난식히엇다

一、국경경비전화는 불통함으로 선천(宣川)을 경유중계로하야 신의주창성(昌城)간만포 후창(厚昌)강계(江界)에 개통되엇다

一、신의주세관 잔교(棧橋)부근의수위는 삼십일일오후 구시현재가 륙메돌십이로 점차감수하여간다 그리고 침수가옥중에는 감수후도괴할 념려가만타한다

紅卍字會救濟團 新義州에出動

시내옥인동(玉仁洞)에잇는 세계홍만자회 조선주회처(世界紅卍字會朝鮮主會處)에서는 이번 국경수해의 리재동포를 구제하기위하야 동회 책임회장 윤치영(尹致暎)씨가 부하세명을다리고 신의주를 향하야 이일오후세시에 발정하리라한다

滿浦鎭의被害 農作에數十萬圓
道路의流失도頗多

【滿浦鎭支局特電】 이십팔일부터 삼십일까지 폭우가와서 교통과 우편이모다끈치엿다 지금조사된 피해로는 도로 수선만얼개월이 걸릴모양이다 이번피해는 리서면(吏西面)과외귀면(外貴面)의논은 약반이나 류실되야 피해는 수십만원이다 리서면에서는 물에빠진 모친차씨(車氏)를구하려다가 딸김성녀(金姓女)가빠저죽엇고만포진(滿浦鎭)에도 가옥륙셰이나 류실하얏다 손해가 약삼천원이다

新義州、石下間의 列車復舊極難
一部는數百工夫가工事開始
빨으면三日頃에開通

【鐵道新義州電話】 삼십일일에이로러 비도 겨우개이고 물도점점 감수되어가기는 하나 일일아침까지도 그세력이 험하야솟을 대이지못하는 형편이다 삼십일일밤이래 압록강의 수위는 오전한시에 십사척팔촌이든것이 동세시 만조의 영향으로 십오척칠촌이 되엇섯스나 다시 감수되여가지고 압호로 더 증수될 념녀는 업시되엿다 그런데 현재오백미돌이나 불통개소로되여잇는 신의주와석하(石下)사이의선로는 칠척으로부터 사척까지침수가 되어잇는채 감수속력이 극히 완만하야 일일 하로의감수로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우나 방금현장을 경게하는철도게원과 부근에서 모아온인부 백 수십명이 오전 일곱시부터 복구공사준비에 착수하야 각처에서 위선 부분적 공사를 시작하엿는데 현장의 천후와 감수상태로보아 복구는 일러도삼일에나 되게 되리라한다

一、자성(慈城)상류는 룡산이불통하나그이외는 선천귀성(龜城)령변(寧邊)히천(熙川)등지를경유하야 통신한다

滿浦、价川線 不通된地點

수해로 인하야 일일오전아홉시현재의 만포선(滿浦線)과 개천선(价川線)의 불통된곳은 다음과갓다

▲滿浦線 北新峴－妙高山間、妙高山－富成間

▲价川線 新安州－安州間、北松里－龍興里

駐在所電信等 警察側被害不少
一部는浸水또는流失

【警務局着電】 이번압록강일대의 수해로 말미아마 경찰시설의피해는다음과갓다

一、신의주 비행장에 침수하야 경찰비행기 두대는 려객기와 가리 완전히 침수되야 당분간은 사용치못하게되엇다

一、신의주부외 마전(麻田)경관출장소는 삼십일밤에 침수하야 이전하엿다

一、도사막(四幕)출장소도 삼십일밤에 건물이 류실되엇다

그외에 신의주서관내의 위화(威化)주재소 상단(上端)오막(五幕)룡암포(龍岩浦)서의 황초(黃草)의주의 서호(西湖)삭주(朔州)의구령포(九寧浦)각주재소는침수하엿다

◇……그리운나무그늘을차저서

間島一帶共軍 鐵道襲擊計畫
反戰데이로空氣不安

【間島支局特電】 팔월일일 반전데ー를 당한 간도의 공산군들은 각지에서 봉기하야 철도연선의 습격을 획책하는중인데당국에서는 엄중히 경비중이다

旅館의客이自殺

삼십일일 오후두시경에 시내공평동(公平洞)이십오번지 전동려관(典洞旅館)제십호방에서 그전날밤 열한시에 취침한 손님한명이 그대로 기동을 하지안흠으로 주인이 수상히생각하고방안에들어가보니 뜻박게 간밤에든 손님이 빽빽한 송장이되고 말엇섯다 즉시 소관종로서(鍾路署)에 이를급보하야 도경찰부에서까지 경관이 현장에 출동하야 상세히 조사한결과 이는평양부차관리(平壤府紋貫里)오십번지 평양실비의원(實費醫院)약국 조수로 잇든 김일홍(金一弘)이란 청년으로서 지난 이십구일 오후세시경에 무단히 집을나가버려서 이미 시내각서에 그수사원까지 와잇던 사람인데 전긔가치 상경하야 전동 려관에서 최면제인 『세드놀』을 다량음하하야 중독자살을 한것인데 평양으로부터 그의친족이 오기전이라 현재 자세히 그원인을 알수업스나 애인에버림을 밧고 염세자살한듯 하다고한다

承德監獄四人 脫獄을計畫
未然에發覺되여防禦
三次나繼續하여敢行

【承德三十一日發聯合】 삼십일오후 열한시이십분경에 열하성승덕감옥(熱河省承德監獄)약오백여명가운데서 청년죄수와 녀자죄수를 빼노코 약일백오십명은 간수의행동을 살펴가면서감방벽을 파괴하고 탈옥을 꾀하엿스나 때마츰간수가 발견하고 발포하야 방어에 노력하는일방 령사관 경찰헌병대에 급보하야 비상소집을 한바 삼십일일오전 한시반에야 겨우진압햇다 동감옥은 금년사월말에 불온의 형세를 보이여서 오월사십일과륙월십일일도 똑가튼 탈옥미수사건이 잇섯는데 이외가 계속하야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각방면은 자못우려중에 잇다한다

路上에서장자다 荷物車에被轢

【公州】 지난 이십칠일 오후십이시경에공주군우성면(公州郡牛城面) 과청양군목면(靑陽郡木面)경계의 공수원(公須院)신작로에서 더위를 피하야 끈한상을자든 십칠세소년 임모는 마침 그곳을 질주하든 청양정산(靑陽定山)최모의 경영 화물자동차에치어 그만부참히도 죽어버렷다한다

株사준다고橫領

부산부평정(釜山富平町) 이정목 주식현물점(株式現物店)좌등덕창(佐藤德昌)은 이십구일 그곳록정(綠町)이정목 림정(笠井)모에게 만주(滿洲)세멘트주오십주를 사준다고속히고 도감백십오원을가지고 경성으로 다러난형적이 잇다하야 경남경찰부로부터경긔도경찰부에수배가왓다

所得稅過賦問題
建議、陳情等을決議
穀協評議員會에서

【群山】 류보=설정곡물간의 소득세(所得稅)과중부과는 미곡경제긔구(米穀經濟機構)의파괴라하야 군산의일반미곡업자들의 반대가잇자 문제는드듸여 확대되야 곡물협회에서도 궐긔하야 동협회에서 상임평의원회까지 개최하기로 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회에서는 지난이십구일오후이시부터 군산곡물검사소 루상에서 상임평의원회를열고 동문제에대하야 리상연의한결과 곡련본부(穀聯本部)에 건의를하는일방 광주세무감독국에 진정키로 하야 진정위원을 선정하기로 하얏다는바 진정위원은 군산(群山)、신태인(新泰仁)、정읍(井邑)김제(金堤)함열(咸悅)등각지에서 각일명식을 선출키로하얏다한다

問題의金福順 自殺企圖未遂

【大邱】 대구모 부호의첩 김복순(金福順)은 일남일녀를낫기고 교묘히유천원의 돈을소비해버리고 진주부산(釜山)등지로 경유하야 경성에서 신경에 갓다가 평양으로 도라와 잠복하고잇든것을 검거하야다가 대구서에서 취조하든중 지난이십팔일 밤중에 복순은 류치장에서 자살 하려다가 류치간수에 발견되여 목적을달하지 못하엿는데 대구서에서는 복순에대하야 철저히 취조사한결과 복순은 자기가 탈주하지 안흐면안될 몸이된 그리유는 그남편부호에게 바차버린 처참한 몸으로서 남의 채무에견이나서 그와가튼 흔적을 감추어든것이라한다 그래서 대구경찰서 사법계에서는 문제의 주인공인 부호를 호출하야 책망하는동시 복순의부채를 변상하도록하고 복순은 금명간배방되리라한다

萬圓이오락가락 彩票當籤者가勝利
一審二審의判決이不當타고
高等法院科料單十圓을判決

【平壤】 일원을 주고산 만국채표(彩票=福民獎券)가 드러마저 돈일만원이생긴것이 동티가나서 부첨수수(富籤授受)라는 죄에걸리어 그돈만원에다가 과료십원을 언치어 바치게되엿든 사건이 고등법원의판결로 또다시한번 뒤집혀 그돈만원을 그대로 먹게 되엇다 사건은 평북신의주부운정정(新義州府梁井町)리시걸(李時傑)이라는 사람이 만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일만원의 제비(富籤)가 빠지는 북민장권(채표)한장을 소화구년 구월이십일에 동복민장권의 취차업자인 안동현거주백기히지조(白崎喜之助)등에게서 일원을내고산것이 요행 당첨이되여 외수업시만주돈 일만원을 꿈결가티 바더가지고 은행과 금융조합에예금하여둔 사실이 잇섯다 이사건에 대하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는 리시걸과 그권유인백기히지조등에 대하야 『조선사람에게는 법률로써 금지한 부첨의 매수를권유하엿고 또 그것을 바덧다』는 리유로 리시걸의 전긔예금한 만여원을 차압하는동시에 각피고에게 십원의 과료에 처하엿섯든것이다 이에 검사는 그판결이 과료만으로서는 안되겟다고 공소를 하엿든바 평양복심법원에서는 백기히지조등 부첨취차인들에게는 무죄、리시걸에게는 일심대로 과료 십원에 일만원몰수의 판결이 내리어 문제의 차압한 만여원은 리시걸의 손에서 또다시 꿈가티 국고금으로 굴러드러가게 되엿섯는데 평양복심의 검사는 역시 피고들에게 형이 가볍다 하야 경성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엿다 그결과 작삼십일일 고등법원에서는 리시걸의 채표에서 탄 돈은 일본돈으로 방구어 은행에 예금하여둔것은『유증물(有證物)』이 아님으로 범죄로 인하야 어든 물건이라고 인정할수가 업다」는 리유로서 그돈의 몰수가 부당타는 판결을내리어 결국 상고는 기각이 되어 피고 리시걸은 과료십원만 내이고 만원은 도로찾게되엿다

牛公이馬公을 "傷害致死"
뿔로바더서當場即死

폭폭 찌는더위에짐을 끄을고가든 우공(牛公)이 그반대로 그늘미테 편안히안저서 소풍하고잇는 마공(馬公)을보고 샘(嫉妬)을내서 무단히덤벼드러 뿔로바터 즉사케한 포악한 우공의 상해치사담ー삼십일일 오전한시경 부외 한지면주성리(漢芝面鑄城里)이등(伊藤)이란 사람의 집 압마당에서 동면 서빙고리(西氷庫里)백이십삼번지 박태윤(朴泰潤)이가 끄을고가든 일곱살먹은수말(牡馬)이 더위를피해서 쉬이고잇슨바 때마츰 그압흘 달구지를끄을고 지나가든 동면보광리(普光里)십삼번지 류홍순(柳興順)의 황소 일곱살먹은놈이 편안히 전긔장소에서 쉬고잇는 말을보고 별안간 샘이복바처 올르며 마공에게덤벼들자 온순한마공은 소의조전(挑戰)에 이를피해서 다러낫다그러자 소는의기양양하여 달어나는 말을 급히 추격해가서 긔어코 반항안코쫏겨가는 말을붓잡어가지고 두뿔로 복부를 되게바터서 말은 차자가 쏘다지며 즉석에서 참사를당햇다。 그래서 그광경을 목도한 동리사람들은 즉시 그소를 결박한다 한편으론 불의의 참사를 당한 말의가엽슨 정상을동정해서 시체를 염습한다 한참 그부근은혼잡을 이루엇섯다한다。

永興暴動의主謀 朱在翰公判廻附
駐在所에放火、巡查殺害未遂事件
鹿兒島에避身中被逮

【咸興】 영흥농민조합(永興農組)의 중요간부로 소화륙년 동소 모조리 습격하여 영흥군내 각관공서를 습격하게하든 소요(騷擾)사건에는 인남지부(仁南支部)의 책임자로 이백여명 조합원을 직접 지휘하여 왕장(旺場)주재소에 방화하고 순사 오모(吳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된후 이어일어나는 검거망은 고묘히피신하여 선부로가장한후에 일본 내지 록아도현(鹿兒島)에가서 어업에 종사하고잇다가 그곳경찰서에 피검된 주재한(朱在翰)은 지난이십칠일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엿다가 삼십일일 치유법위반 살인예비(殺人豫備)급소요의 죄명으로 공판에 회부되엿다

蘇聯潛水艦沈沒 五十五名이殉職
演習中僚艦과衝突로

【莫斯科三十一日發聯合】 싸베ー트 러시아 해군소속 잠수함『베・아이』삼호는 칠월이십오일 핀란드만에서 연습중 해상에서료함(僚艦)과 충돌하여 침몰하엿다、승무원 해군병학교 생도오십오명은 전부순직하엿다、동잠수함은 일천구백십칠년에 건조한 구식함정이라한다

斷崖에서自働車墜落 乘客等六名이慘死
慶北盈德郡山中慘變

【大邱支局電話】 삼십일일 오후세시 이십분경 경북대구 공영(共榮)자동차 주식회사 운전수 김출이(金出伊)가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고 포항(浦項)으로 가든도중 영덕군영덕면 화개동 (華開洞)부락으로 부터 북방으로약십정 가량되는 곳에 달하엿슬때에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잘못하야 약오십척 가량되는 벼랑에서 추락되야승객아홉명중 다음다섯명은 즉사하고 운전수 김출이외승객두명은 중상을입고 한명은경상을입엇는데 운전수김출이도 일일오전 일곱시에 드듸여절명되엿다

▲即死者氏名

慶北英陽郡英陽邑內 金相伊

慶北盈德郡盈德邑內 金相根

慶北盈德郡北山面七星里 (女)李 氏

慶北奉化郡法田面法田里 權榮鎬

京城府古市町一二番地 渡邊光

取調中窃盜犯 駐在所서脫走

강원도 평강군 남면가곡리(平康郡南面佳谷里) 박진룡(朴鎭龍)은 지난이십일일과 그동리지금상(地金商)류광춘(劉光春)의현금 일백이십원을 절취한외 지금일백이십『몸메』를 홍진사실이탈로되야 그곳경찰관 주재소에 인치취조를받든중 취조경관이 잠간비킨틈을타서 어데로도망하여버렷다 동주재소에서는대경실색하야 평강경찰서에 보고하는일방린근각경찰부에 수배하고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肺病을悲觀 投井自殺

팔월일일 오전오시경 시내숭이동(崇二洞)오십륙번지 임백수(任百壽)의장녀임원준(任元俊)은 근처에잇는 공동우물(共同井戶)에 투신 자살하엿다는데 그는 진즉부터 폐병(肺病)에걸려 오래동안 신음하여 왓스나 전쾌될가망이 업슴을 비관하든 끄테 그처럼 죽엄의길을 밟은 것이라한다

江原道一帶의 被害詳報

강원도(江原道)의 수해피해상황은 그후 조사하든중 일일다음과가티 경무국에 확보가 들어왓는데 이외에 리재민중에는 정도이상의 참경에 섯는자가만타하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으로구제를 요하는 이십이명에대하야서는 도내흉구공제비(凶救共濟費)에서 이십원식 조위금을 지불하고 가옥의 류실과 전괴자에게도 위문금을 주고자 실정을조사중이다

▲死者二二名▲負傷者一八名▲行方不明四名▲家屋流失四五戶▲同半壞一〇四戶▲同浸水五一三▲家畜의被害四二▲田畑流失埋沒及浸水二、七八八町步(損害見積十二萬圓)▲道路流失及決潰二〇一個所(六、四二八米)▲橋梁流失八▲鐵道流失三個所(六百米)▲堤防崩壞流失六〇個所(二、二二八米)

天氣豫報
曇一時晴

今朝에새로히 颱風이 大東島의南에나타나 北西로進行中이나 그勢力은弱하다 日本의南東海上에잇는 高氣壓의一端은 朝鮮에突出하야 黃海側의 氣壓配置는 不安定하고 滿洲의北部는氣壓이낫다 北滿과南朝鮮及日本은 날이들뜻하고 南滿洲부터 中部朝鮮까지는 흐리며 處處에소낙비가나리고 仁川과大連에는 안개가끼엿다

昨日最高 三二、一
最低 二四、九
今日正午 二七、三

各地天氣

中江鎭	新義州	平壤	仁川	京城	全州	木浦	濟州島	雄基	城津	元山	江陵
曇	霧	雨	曇	曇	曇	晴	晴	曇	曇	雨	晴
大邱	釜山	下關	大阪	東京	天津	新京	奉天	營口	大連	青島	上海
晴	晴	曇	晴	曇	曇	晴	晴	曇	曇	晴	曇

運動競技

蹴球第二回戰에 英艦2 鎭南0
鎭南浦一勝一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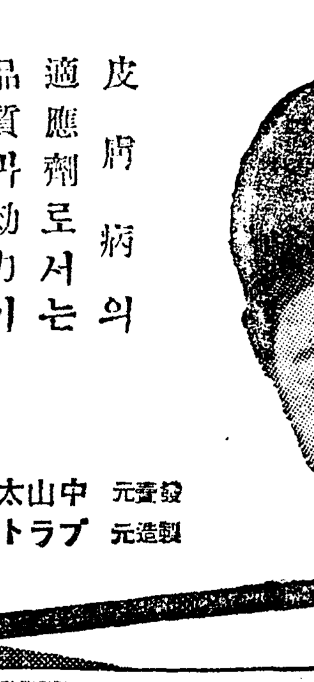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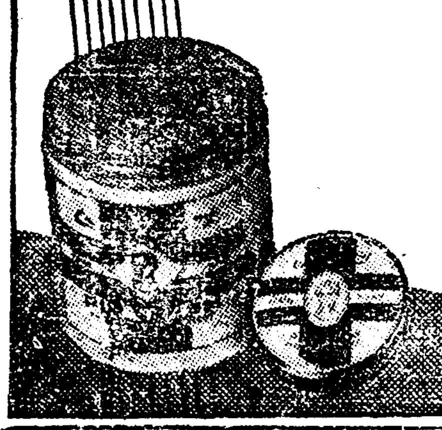
【鎭南浦】 鎭南浦體育會競技部主催의 英國艦隊歡迎式蹴球試合의 第二回戰은 二十九日午後五時二十五分부터 鎭南浦工學校運動場에서擧行한바 英艦팀은 前日의 敗退를 雪辱코저 開戰時頭부터 競技는白熱戰으로들어가 結局二對零으로英國艦隊팀이이겨서鎭南浦팀은一勝一敗하엿다한다

木浦個人庭球에 嚴金組가優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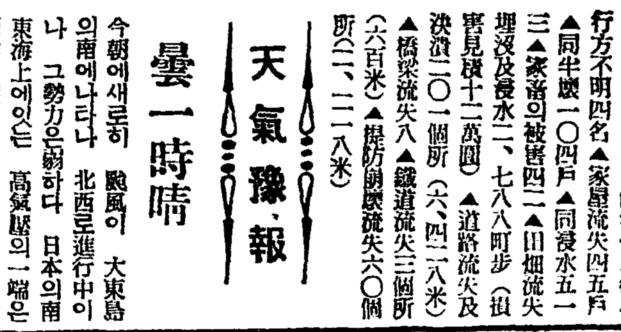
【木浦】 木浦體育會主催의 第九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 決勝戰은 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 木浦府廳「코ー트」에서 開催되여 決勝에 嚴達鎬、金俊鉉組對張茂烈、鄭在成組가對戰되바 四對二로嚴金組가 優勝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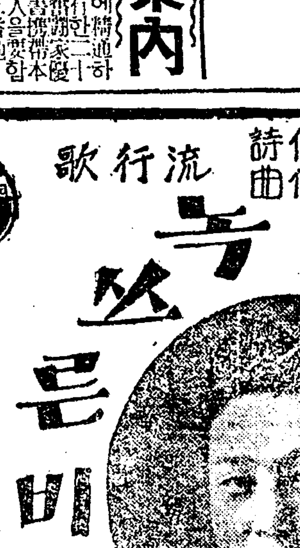
伯林올림픽大會에 獨逸과日本이强敵
米國名코ー취觀測

伯林에서 開催될 國際올림픽大會를 앞두고 米國의名『코ー취』로 世界陸上界에偉名을 휘날리고잇는『로ー손・로바ー도손』氏는 明年올림픽大會에對한 氏의 豫想을 다음과가티 말하엿다。『米國이 第一두려워한다는것은 獨逸팀이요 第二의强敵은 日本이다 日本陸上界의 技術的研究의 熱心과 競技에잇서 旺盛한 鬪志는 世界에드뭄다 그럼으로 米國에 잇서서의 日本팀은 芬蘭以上의 最强敵이다』



家庭美粧藥
プラターム
푸라다ー무
皮膚病의 適應劑로서는 品質과效力이 斷然拔群!
一家庭一品藥 푸라다ー무
主効 切傷、火傷、凍傷、皸裂、神經痛、肩凝、류마치스、鼻加答兒、痔疾、무좀、땀띠、面刀後、化粧下
定價 中罐貳拾錢 大罐參拾錢 中瓶六拾錢 大瓶壹圓貳拾錢
高岡醫學博士・三内醫學博士 大倉藥學士研究完成
發賣元 中山太陽堂藥品部
製造元 プラトン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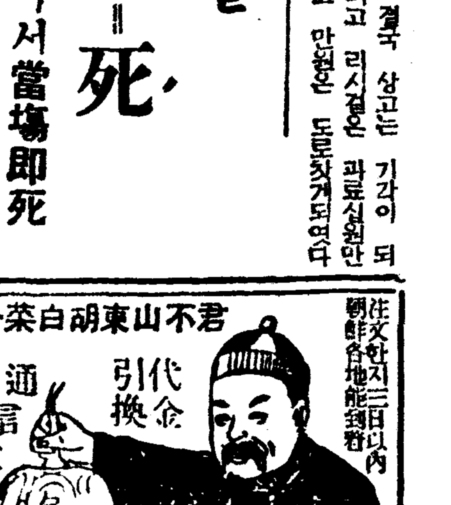
朝報案內
外務 社員採用 府內外에精通하고 外務에經驗이有한 二十五歲以上 四十五歲까지의 希望者는 履歷書携帶本人來談하야주시오 但保證人을要함 京城府永樂町貳丁目貳拾五番地 共濟無盡株式會社
少女募集 滿十四、十五、十六歲程度의 食堂少女二十名을 採用함(但日本人五名) 銀路韓靑 食堂 靑ビル二階


遊園會用天幕 泉商會テント部
用車物貨荷
一切 諸天幕 運動具 防水布 日覆 荷物車 雨覆 防水加工品一式及各種衣類 寢臺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九一七一番・振替京城一七九九二番

流行歌 劉道順作詩 江口夜詩作曲
녹쓰른비녀

蔡奎燁
人氣白熱化!!
콜럼비아레코ー드

京城 金地金分析所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〇

官認 大田寫眞學院 第三回 生徒募集
出願締切期日 九月十九日 開學期日 九月二十五日 學則要三錢切手
三個月卒業
大田邑大興町

君不山東胡白菜乎아

代金引換 通信大賣 多少不拘
純支那產 이것이 한포기 一貫四五百되는 株
注文한지 三日以內 朝鮮各地能到着
勿驚! 本園五大胡白菜種을심으면 今年秋期菜農은 期必코大成功
壹金百圓也進呈
비록 一封一合에 菜種이라도 本農園에서 買入한것이 播種後非本種不結球이면 一金壹百圓也의 賠償金을드리기로 誓約

種		
種白菜 連頭包	一封二十錢 一合七十錢	五合三圓三十錢 一升六圓五十錢
種白菜 黑芝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種白菜 綠直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種白菜 山東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根大長青蘿中國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安東縣四番通
山東農園
電話三二九番 振替京城二三八三番

어찌하리까

형제가 [illegible]살다가 각살림해야올쏘

問 저는금년 서른두살된 남자입니다. 현식이라는 보통학교를 졸업하엿슬뿐이고 양복일하는것이 업입니다 별로히 뛰어난기술은 못가젓지만 약십년가량종사하엿는지라 그냥저냥식수을하을정도는 되여잇습니다. 그런데현재에 저의 집안에는 부모님이게시고 회혼한 동생내외와 나에게따른식구로안해와 자식이 몃이나됩니다. 다각기한집에서 살면서한솟의 밥을먹고 두형제가벌어 부모님을모시고 그냥저냥지내니까 이웃사람들이행복스런가정이라고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말할수업는번민이잇습니다. 그것은 두어달전에아우가 결혼을해서 색시를마저드렷습니다 그색시는 신여성인데 우리와가티 한집에살기를꺼려하는 눈치입니다. 아우가 버는 돈이 매야 오십원 가량밧게 안되나 또따로따로 다달이 드러오는돈이라 여유가 잇는것갓고 나는생기는 돈백원식생겨도 세월이 업슬때는 놀고지나는 양복직공인지라 여간궁하지안습니다 그러니까 자긔비에게 떼끼질 때가 만습니다만 이것이 행재가정을 순란하게만들니다 각살림을 하겟다고 야단들이나 지금지나는 형편으로 보아파 차에 살기가곤난할것은 정한리치입니다 더구나 저는장자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잇슬의무가잇는데 각살림을하는날에는 여간큰문제가 아닙니다 모든들이 잇드라도 국원고잇서좃까요? 그러치안으면 잇거리는 도리가 잇겟습니까? (李生)

각살림하는것이 제일편한노릇

答 아모리 형제간일지라도 각기자긔에게 딸린식구가생기면 거기에따른 예산관념이생깁니다 장래의 자긔가정을 생각한다면야 한집안에서 여러식구가 어울 어울러 살아갈수 잇겟습니까? 넘변한 정안가운데 돈으로것습니다 몃 흥이아닌는수업가지고 여기저기 벌러자니 자연히 자기네하고 실흔것을 못하게될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의리라는것도 경제문제에 드러서는 일정한 한계가잇고 넘어게 의지하라는 생각으로가되엇어 우리네가족제도의한가지 폐해입니다. 각기가정을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식히노아야 될것이며 이것을 원칙으로세워노코 급박한사정 부득의한경우에 피차 원조하는것이 우리에 속한것이라고봅니다.

잇습니다 형제에아우가 자기의입장을 내리을하니까 먼저 서간을 내어주십시요 그래서 먹거나 자긔들이 살대로 먹거나 두십시요 이것은 섭섭한일도 아니요 의를상하는일도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당신대로 따로사시되 될밧한경우에는 그때의 형편따라 자리에서 원조를 하여줄 메일 생활을들고 잇것다는것은 무척하는것도 의리에 어그러진 리엄니다. 차자라고 부모를 모실의무가 잇다고 어나보다 형편이나으면 거기에가서게실수도 잇지안습니까 반드시 면저되는것이아니니까 그전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사라갈 도리를 하십시요 (기자)

모를것은 '물의마음'

목숨을 일차들면 접시물에도
맑은물이 깁흔물
여름의비화(悲話)는물이맨든다
자신업는헤염이낭패

여름! 물이라는 여름 이러한때에 만약물이 업고 큰강이업고 바다가업섯드면 사람들은 엇더케 살어나갈것입니가? 그럼으로 여름한철에 숨이막히고 땀이쏘다지도록 덥다가서늘한 물속에 뛰여드는것은한 개의 쾌락이 아니라고할수업습니다. 그럼으로여름철의물은 사막의「오아시스」에못하지안홀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물도때로는 악마와가틀때 가잇스니 해마다신문상사면에 낫타나는 물의희생자가 얼마나 만습니가 그럼으로만약이러한 위험한일이 생길때를예상하고서 몃가지주의하실 말씀을드리겟는데 무엇보담도첫재 물에빠지지안는것이 제일 조흡니다 그런데물에드러갈때 제일 위험한것은 헤엄질도잘할줄모르면서 물만보면 우선조하라고 풍덩뛰여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아주익숙한곳이 아니면 먼저물깁히를 잘보아야하는데

맑은물일사록

보기는 얏하도 드러가보면속 아다른것입니다 그럼으로반드시 헤염잘치는 지도자를따러 가는것이조흡니다 그리고바다 가튼데가면 남도헤여간다고 실력이상으로 멀리갈것이 아닙니다 첫재는 갓다가도라올일도 생각해야할것이고 둘재로는바다ㅅ물에 멀리드러가면 한류(寒流)와난류(暖流)의관계로서 물의온도가 맛치 더운물과 어름물을대여 노흔것과가름으로 어조하라고 풍덩뛰여드는 것은 심장마비가이러나기 쉬운것입니다 그럼으로바다에 드러갈때는예비운동을하는것이 조흡니다

강물속에서도

공연히 이쪽편에서 저쪽편까지헤염처가겟다고 실력도업시 덤빌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주의할것은 바다에서나 『풀』에서는 상업는사람이 흔히 구렁물에빠진 신동욱하는사람이 잇스나 이런것은 절대로 피하지안어 서는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물에빠젓슬때는 구조할사람이 만저 물에 드러가는것은 최후의경우인것이고 처음에는 줄을 던저주던지 바지랑ㅅ대가튼것을 쥐게

너어주는것이

제일좃습니다. 그러나 만일 물속에 드러가서 구하지아니하면 안될때에 주의할것은 물에빠진사람이란 집프래이 하나만쥐여도 붓잡고 달녀드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사람어 구하러 드러가면 반드시 그사람의 목에 매여달니려하는데 이런때에는 물에빠진사람에게 붓잡히지말고 멀니떠러저다 갓가이햇다 하면서 그사람이 어지간이 지치엿슬때 목아지를 겨드랑 밋헤 끼고 나오는것이좃습니다 흔히 물에빠진사람을 구하려 드러갓다가 마저

빠저죽는례가

만흔데 이런것은 구하려드러 간사람이 물에빠진사람에게붓잡혀서 헤엄을칠수가 업게되는때문입니다. 그럼으로 물에빠진 사람을 구하는데는공연히 황급하게만 날뛰지말고 될수잇는대로 침착한태도로써 빠진사람의 긔운을 잘보아서어 지간이 힘을못쓰게되엿슬때 건저내는것이 제일조흡니다 그리고 건저내온 뒤에는 먼저 물을토하게 하는일방 인공호흡도 식혀야합니다

산아외뉴스

안해를구하랴면 양육원으로가라

시집올때돈가지고오고, 이러니저러니말성부릴일가친척업고, 엇저다가팡장히어엽분사람이 걸리기도하는』이러한 안해를구하랴거든『바르세로나』의 어머니의집(養育院)대문을두드리시요―하는이야기랍니다. 여러백명의 고아들중에서색시를 마음대로 고를수잇는데다가 혼인할때에는 어머니의집죽 양육원에서 일천페소라의돈(持參金)을 주니 이세상에서 꿈가튼이야기가아닙니까 『이야바한진지에 남어무슨다른동한일이리요!』하고 스페인안의 젊은총각들이 나도 나도 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잘한생각이겟지요―총거치장스런조건이잇습니다. 나이가찬 고아들은 각금 수녀들을따라 교외로산보를 가는데 세상을 모르고자라난아가씨들이라 마음참고 깨끗한것이드러납니다. 그러라고정월회어가지고 양육원에 결혼신청을하는따위의법식은아닙니다. 먼저양육원의 규정에의해서 사회복지국(社會福祉)에가서, 건강, 성질, 품행, 기타남편이될수잇는 조건에대한 조사를받지 안어서는안됩니다. 여기에파스가되여야 비로소 양육원문을드려서게되며 그만은결혼청력자중에서 신부감을골라내는데 마음대로 그다음 두사람교제에는 반드시 수녀가따라다니며감시를합니다 [illegible]

사진은―정열적인스페인의녀자一九三五년도미쓰·스페인에당선되여 다시미쓰·유-롭선발경연회에참가하겟다는알리치아·나바로양

장마끄테는 병이무섭다

—기온과 신체기능의변화—

城大伊藤內科敎室 朴秉來

여름이되면 우리들은 여러가지 위험을 늣기게되는데 무엇보다 큰것은 홍수와 병두가지로 볼수잇습니다. 연일 쉴사이업시오는폭우도 요즘은겨우멈한 모양이나 지방에서는 물난리를 겪거 인명과 재산을 빼앗기고잇는것을보아 홍수에 대해서는아직도 마음을 노흘수업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장마를치루고 홍수를모면한다할찌라도 그다음에 오는 위협이잇스니 그것이 곳여러가지 전염병입니다 장마뒤에는 습기가 심하게연일 쉬임사이업시오던 폭우도 지금은 차차로결말을지을듯 합니다 만흔 아직도 알수업습니다 폭우로 인하야 가옥이 문허지고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실로 형용할수업는 참사가 처처에 생김을 지상으로 보게됩니다 장마가 개이게되면 남을바무엇이잇스리요 이러한재의 변동을 엇지 막게되리까마는 어느정도까지는 보건상 필요한주의를하여

장마후

에응당하는 여러가지 병을방비하여야 될것입니다 장마후에는 습기가심하게되난고로 공긔중에 습기가심하면 신체안에잇는 수분의배설이 곤난하게되며 따라서 체온조절이 불완전하게 됩니다 이런때에 만일긔온(氣溫)이놉흐면 체온발산이 불가능하게되여 호흡과 맥박이자저지고 심할때에는 발열(發熱)혹은 신경계통의마비(痲痺)를 이르키게됩니다 만일 경할때에는 정신에권태감을 이르킵니다 이와반대로 긔온이놉고 공기가

간조할

때에는수분발산이 왕성하여지며 자연히 구갈증이 생기게됩니다 이런때에 적당한수분을 공급지안하면 심장마비(心臟痲痺) 혹은 뇌빈혈(腦貧血)을 이르킬위험이 생기게됩니다 또 습기가 간접으로 세균번식을 조장식히여 전염병의 류행을 도읍는 동긔가되는 습한곳이잇스면 모래흙은 자갈흙을피여 정결케 할것입니다. 장마때에 저즌의복을

그대로

입는것은 큰해가되오나 즉먼저 말슴한바와가티 체온발산을 방해하야 감긔등에 걸리기쉬운 고로 비마즌옷은 집에 도라오면 즉시 가러입고 몸을 마른수건으로 씻슬것입니다 장마가개이고 일광이 비치거든 시간을다투어 즉시 방안에잇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이부자리옷가지를 내여말으게하고 마루밋흔 석회등을뿌리게 할것입니다 조선온돌방은 지형에따라 다소다르기는하겟지만 대개는 습하기쉬운고로 하로에 조곰식 불을 넣케하며 방안에 곰팡이가 나지안토록 주의할것입니다 밤에 잘때에는 차지안케하되 더구나주의할것은 배를더웁게하고 자야됩니다 흔히 장마후에 배탈이나는것은 음식을먹은후에 배를차게한것이 원인될때가만습니다 장마후에 음식에대하야 특히 주의할것은 찬것은음식이나 엇지할수업는 경우에는 한번 끄리여식은후에 먹게할것이니 이것은 장마로인하야 부패되기쉬웁고 또는홍수에 여러가지불결한것이 들기쉬운고로 (수도물사용치안할때)십분 주의할것입니다 실파등 도 역시 상하기쉬웁고 [illegible]한것은일체잡숫지안케

家庭 메모

무사마귀와 티눈 손쉽게 업새는법

얼골에 혹은손가락에 무사마귀가나서 곤란하신분―다른좃기와달나 아프다거나 가렵다거나 하지는 안치만 남보기에 흉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병원에가면 의례히약을 발러석히거나 전기로지집니다만 그자리에 흉터진은 갈데업고, 또 아조근치도 되나하면 보증할수도 업습닛가 그런데 내복약으로 감쪽가치 낫는수가잇습니다 절코 비우한디어아니라 신통한효과는 시험해본후에야 알게됩니다. 어느시골에나 대개다잇습니다 율무라는 것이잇습니다 어려서 해볼이 딸서 여주도 맨들고, 떡도해먹는것인데 한약국에서는(薏苡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이것을 꺼칠채한곳을에너코 다려먹으면 신통하게낫습니다 녀넘집고세번만 다려잡서보십시요.

◇

발고락사이에 티눈이생겨 고생되시는분은 약도 약이려니와, 발톱자주씨스시고, 티눈백이자리를 잘 올거서떠면한것을 뜨더내다움보선신으실때는 발사이에랄지면을 끼어살과살이 맛닷지 안케하십시요. 한일주일만 이러면웬만한티눈은업서집니다

世界文藝童話集

처음행복

—안톤·체홉作— 露國

❶……崔秉和 譯

어린이들은 누구나다 즐거워할 크리스마스(예수나신날)의전날밤 일이엿습니다. 모스코바(아라사서울)에서 구두가게하는 아리아힝의집에 시골서 구두를 배호려온 왕카·추고푸라고 일홈을부르는 소년은 주인과 주인아씨와 그리고 집안사람이 모다 례배당으로 례배를보라간뒤에 주인의 탁자에서 녹스른펜과 먼지가 케케안즌잉크병을 감안히꺼내고 구겨진 종이한장을 걸상우에 펼처노앗습니다.

누구에게 들키지나 안흘가하고 염려를하는듯이 구두끔이노히잇는탁자들과 그사이에 끼여서 성탄을 축하하는 밝안불빛으로 빗나고잇는 동리의 유리창을 바라보지면서 적은잎에 무릅안저서 왕카는 편지를 쓰기시작하엿습니다. 금년에 겨우 아홉살밧게안된 왕카이엿습니다.

『그리운 콘스탄친 마카리치하라버지』우선 이러케 쓰기시작하엿습니다.

『저는 하라버지에게 지금편지를 올닙니다.―크리스마스. 축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버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도록.―아버지도 어머니도안게신 저는 오쪽 하라버지만을의지하지안으면 안됩니다』

여기까지쓰고나서 왕카는 초불이 빗노이고 잇는 유리창편으로 눈을향햇습니다. 그러니간 왕카의가슴에 콘스탄친 하라버지의 얼골이 어렴프시 생각이 나는것이엿습니다.

하라버지는 시골어느 부자집 순경군이엿습니다. 말느시고 키도적으시지만 언제든지 벙글벙글 웃으시면서 대단히기력이조흐신 하라버지이엿습니다.

나제는 하인의방에서 주무시기도하고 쿡쿠(요리만드는사람)에게 놀님도바드시고 게시지만 밤이면 큰양겁데기 외투를둘느시고 허리에 느러찬 방방이소리를딱! 딱! 내면서 큰집마을구석구석 도라다니시고 게십니다.

지금쯤은 필경 문에가 소시다가 [illegible] 에서 하인들과 농담을하시는거나 그것에 흥미업스십니다.

하라버지는 냄새맛는 담배를 남유달리 조와하십니다.

『어려분 냄새맛는 담배는 엇더습닛가』이러케 말슴하시고 내 [illegible] 하인들기코앞에 손에당어서 내밀면 [illegible] 큰소리로 재채기를 하는것입니다. 하라버지는 그것을 기다리고잇다가 손벽을치면서 깨러집니다. 그러면 즉시 참을수 [illegible]

『즉시 씨서버리지안으면 너의 코에는 담배냄새가 편다』

[illegible] 감감한밤이지만 맑게 개여서 바람은 한점업고 하얀서리가 왼동리를 덥혀잇습니다 서리속에 부들부들 떨고 잇는 나무들 이곳저곳 다복다복한눈들 집웅들에서 조용히 떠올는는연기들 이런것까지도 모다 보여옵니다 하날에는 갑작한 별들이 쫙쫙어리고 은하수가 뚝뚝하게 떠잇습니다.

왕카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후하고 한숨을 쉬고나서 펜에다가 잉크를 적어가지고 또계속하야 썻습니다.

라디오프로

娛樂

八月一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獨唱 一、석굴길(全)二、英語공부(全)三、산에서오내새(全) 四、望鄕의노래(全) 五、별따기(吳)六、메밀꽃(全) 七、넓은대장간(全)八、산으로갈까, 바다로갈까(全) 九、汽車(吳) 全明姬 吳馨淑 피아노伴奏 玄 霎

◇同六時五五分 라디오學校 夏季休暇中의 注意할事項(一) 金鎬晟

◇同八時 哲學講話 (二)批評講座 李世鉒

◇八時三〇分 [illegible] 一、報告 二、새려령 三、大學에이 四、[illegible] 五、興打鈴 吳鎭澤 金[illegible]

◇同九時 모던漫談壇 一、[illegible] 二、半醉人生 三、[illegible]

八月二日(金曜)

◇午後〇時五分 자즈 一、울어도울어도 二、黃昏의沙漠 三、메리위도우 四、上海길 五、하와이노래 六、아득한千里길 PK자즈밴드

◇同二時 美術講座 繪畵의鑑賞 (二) 李承萬

◇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獨奏 一、스에쯔…그로페作曲 二、타란텔라…뷰ー몬드作曲 三、항가리잇포스트로―으…요―만스作曲 四、古城의鐘…플랑케트作曲 五、아메리칸퍼스…[illegible]作曲 六、[illegible]…合唱作曲 崔英植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夏季休暇中에注意할事項(二) 金鎬晟

[illegible]랑의市場 林生員 麗品仙 李 撮影 作奏 OK째즈밴드

◇同八時〇分 趣味講話 英國學校의現狀 (一) 金 顯 大

◇同八時三〇分 特輯라듸오風景 藥水風景 全二景 金雲汀作 라듸오프레이미렁

◇同九時一〇分 歌詞 一、길軍樂 二、白鷗詞 金水晶 大笒 金水根 杖鼓 金一守

◇同九時三五分 獨唱 一、그집앞…玄濟明作曲 二、머ー나먼산타르치아…마리오作曲 三、叱られて…弘田龍太郞作曲 四、바다로오너라 伊太利民謠 五、故鄕의廢家 하이스作曲 六、鉾を收めて…中山晋平作曲 七、歌劇『아프리가나』中에서 마이어베ー어作曲 오ー아름다운나라여

三日(土曜)

◇午前九時五〇分 (東) 野球試合實況 第九回全國都市對抗野球大會 ―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

◇午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三〇分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여름 二、同 소낙비 三兄弟 三、獨唱 별애기 四、同 언니 五、齊唱 당무 六、獨唱 별님 七、同 모종이 八、齊唱 졸닝기旺 新學院兒童 피아노伴奏 金泰哲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 외나무다리

◇同七時 라듸오學校 人造氷에對하야 張相吉

◇同八時 趣味講話 英國學校의現狀(二) 金 顯 大

◇同八時三〇分 流行歌今昔 一、넬러를차저서…鄭士仁作曲 二、京城은조흔곳…江口夜詩作曲 三、旅恨…池錫絃作曲 四、世紀末의노래…金龍煥作曲 五、沙漠의려자최 六、追憶…全基玹作曲 七、孤島의情恨 全玉伴奏 DK管絃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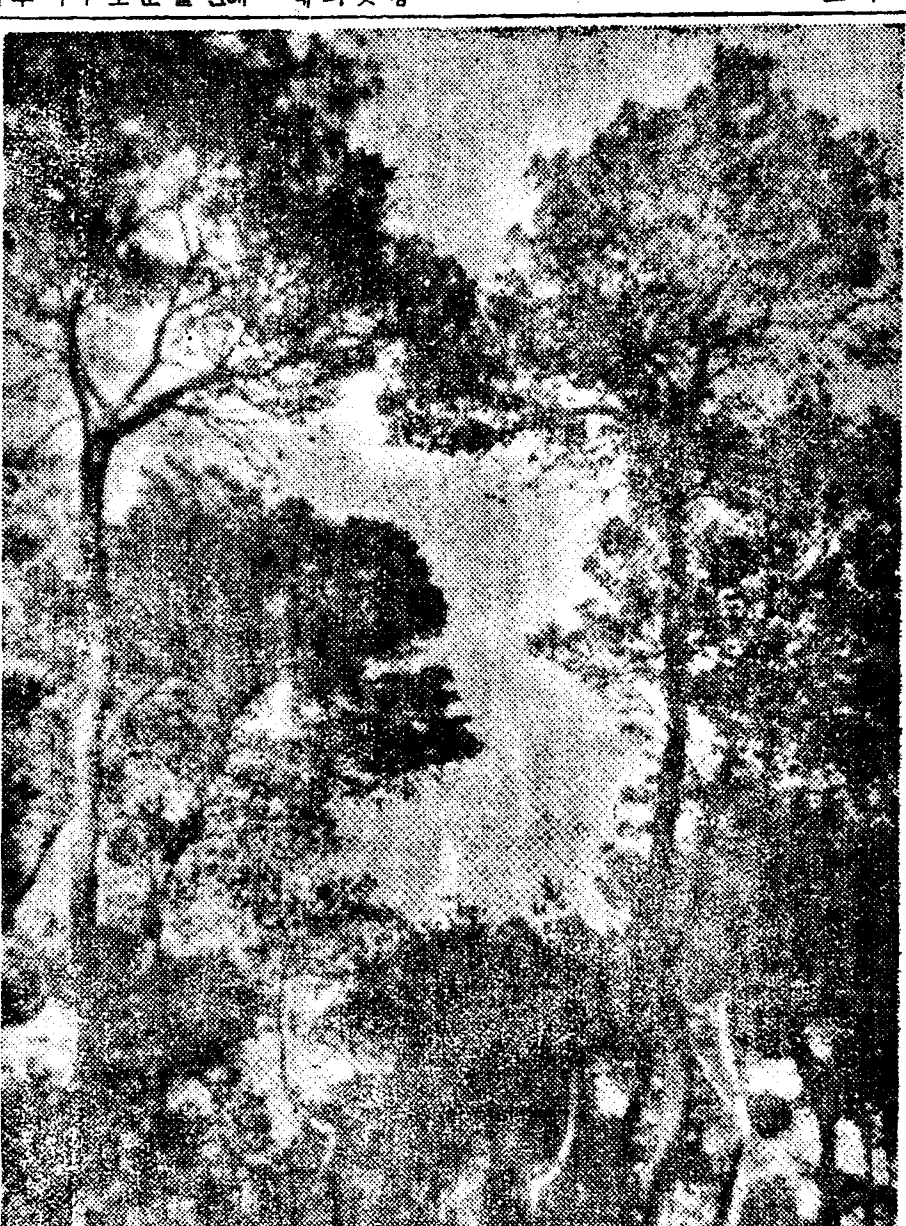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水宮歌 金煉守 鼓手 丁元燮

◇同九時三〇分 時調 一、時調外 二、지름 三、流山歌 四、齊邊歌 五、노래가락 六、창부타령 金泰運 朴眞淑

曆

八月二日(金) 陰七月建癸未(大)初四日 庚辰·金·牛·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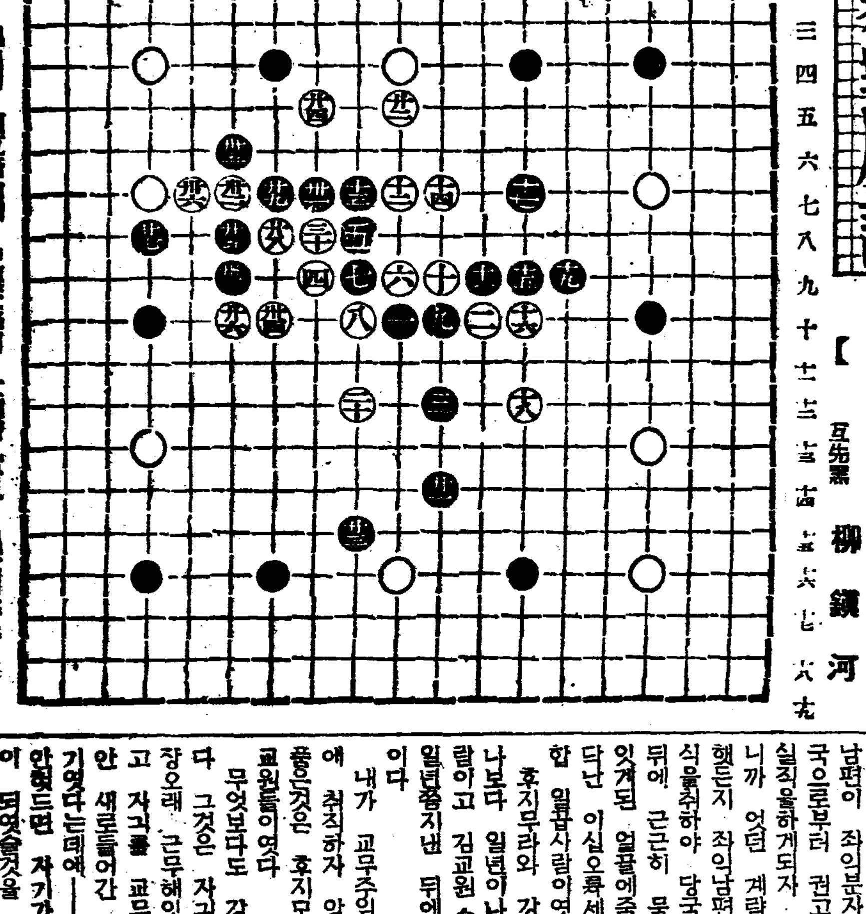
▲立秋 八日(陰七月初十日)
▲末伏 十二日(陰七月十四日)
▲處暑 (廿四日陰七月廿六日)



…숨……사……이……로……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閔仲植
互先黑 柳鎭河



(一七)	●	庚의七
(一八)	○	庚의十二
(一九)	●	己의九
(二〇)	○	子의十三
(二一)	●	壬의十四
(二二)	○	癸의五
(二三)	●	子의十五
(二四)	○	丑의五
(二五)	●	卯의八
(二六)	○	卯의十
(二七)	●	巳의八
(二八)	○	寅의八
(二九)	●	寅의七
(三〇)	○	丑의八
(三一)	●	丑의七
(三二)	○	卯의七
(三三)	●	卯의九
(三四)	○	寅의十
(三五)	●	卯의六
(三六)	○	辰의七

◇蔡極文氏評 黑白이 相互鎭角에 中復交鋒이 大局[illegible]하다. 黑庚의七로 白이 庚의十二로 列撥할때 黑이 己의九로 抽立함도 非不好矣언마는 白이 子의十三로 [illegible] 黑의 [illegible] 子의十二로 應한만 갓지못할것이다 한번讓先해볼일, 白은 寅의八丑의八 黑은 寅의七 [illegible] 緊張中發現이 된듯하니 [illegible]가 濃厚하니 盤上[illegible]은 [illegible]

위확장병으로서 곤증이생겨

問 이십사세녀자인대 위확장증이잇습니다 식욕이심하야 만히먹고나면식곤증(食困症)으로 고통합니다 아모것도하기실코뇌의작용까지둔하며 마치중유병자갓습니다 이러케계속되면내종에 난백치(白痴)가 되지안켓습니까 선생님하로가괴롭고 한때가괴롭습니다 빨리하교하여주십시요 (馬山女性)

答 위장확장증이잇다하시니 먼저그것을치료하시고 음식을조곰식자시도록하십시요 음식소화되기쉬웁고 유한것을 자십시요 심한것이수습하여야낫습니다 좌긔처방을복용하야보십시요

一、重曹 一、五
호미카엑쓰 〇、〇六
酸製마그네시아 〇、五
健末 〇、五
쁘로바린 一、〇
右外分三包 每食後三十分服用 要一個月連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편두통에무슨약

問 이십철세된녀자입니다 저난신경질입니다 각금바른편두통이심합니다 풀머리가쑤시고 또 손으로만저도 당긔의 살갓습니다 조흔처방을가르켜주십시요 (偏頭痛女)

答 편두통(偏頭痛)에 특효한약이라할는지요 좌긔약을복용하시면나을듯합니다 심할때자시여보시요

一、아쓰삐린 一、〇
미크러닌 一、〇
鹽酸키니네 〇、三
燐酸코데인 〇、〇五
酸製마그네시아 〇、五
右爲一日量分三分食間服用要一週間連用
(大學病院伊藤內科朴秉來)

短篇小說 求婚行 (二)

嚴興燮 作　高一 畵

그가 지금 K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게된원인은 실상은 오년전 내가K소학교 교무주임으로잇슬당시에 잇끄러들인데에잇다 K소학교는 남녀아동 사백여명을수용한 六학급제의 사립학교로서 상당한 역사와지반을 차즌곳이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 양혁식으로 출근하는 S교장, 나 그리고 부보조비(府補助費)로 배치되여와잇는 근시안경(近視眼鏡)을쓴 후지무라(藤村), B고보(高普)를졸업하고 시골어느공보에 촉탁교원으로 가잇다가 학교유지회리사의 소개로 들어온 눈알이가늘은 강교원 엇던 부시학(府視學)의 소위 오시우리 (押)로 채용된 음흉하게생긴 최교원, 거긔다가 P고보의졸업 선수로 한때는 로맨틱한 [illegible](行)을 꿈꾸엇든 일이 잇섯다는 패활한 성격과 건장한 근육을 가진 김교원, 그리고는 S교장의 오촌 조카딸이요, 삼년동안이나 시내 모공보훈도(訓導)로잇다가 남편이 좌익분자라는 리유로당국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직을하게되자 생활이 궁해지니까 엇던 계략을, 탐구(探究)햇든지 좌익남편과리혼한 형식을취하야 당국의 량해를구한 뒤에 근근히 묵인(默認)되여와 잇게된 얼골에주근깨가 다닥다닥난 이십오륙세의 손교원 도합 일곱사람이엿다.

후지무라와 강교원 최교원은 나보다 일년이나 먼저들어온사람이고 김교원 손교원은 나보다 일년쯤지난 뒤에들어온 사람들이다

내가 교무주임으로서 K소학에 취직하자 암암리에 불평을 품은것은 후지모라, 강, 최등의세교원들이엿다

무엇보다도 강교원에게 만헛다 그것은 자긔가 K소학에가 장오래 근무해잇는데도 불구하고 자긔를 교무주임을 식히지 안코 새로들어간 내게교무를 맛기엿다는데에―즉내가들어가지 안엇드면 자긔가 흥은교무주임이 되엿슬것을 내가들어가기때문에 그 헤게모니―를빼앗기게 되엿다는데서부터온 일종의 시긔와암투와 가튼 긔분을 나는 흔히 강교원의 행동에서 차저낼수잇섯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만 오습지고 말엇슬뿐이엿다 강교원을 중심으로하고 후지무라 최, 그들세사람은 단짝이 되여서 사무실공긔란것이 두갈래로 갈리게되엇스니 또한갈래라는 것은 패활한 김교원과 좀우울한 손교원은 엇전지 그들편에가 하지안코 나를가풀고 나를지지(支持)하는것이엿다 연구교수(硏究敎授) 비평교수(批評敎授)라는것이 잇슬때면 후지무라, 강, 최들은 김교원과 손교원의 교수를 엇던 우월감을 가진것처럼 실상은 쥐꼬리만 한두권쯤의 교육학이나 교수법을 읽은데 지나지 안흐면서 의기양양하게 무조건하고 대리서부터 악평하는것이엿다 사실 김교원과 손교원은 [illegible] 구나 김교원은 교수법이 서투럿든것만은 사실이엇스나 그들 비평이란 연구적견지를 떠난 감정적으로 덤허노코 김교원 손교원이 자긔편에 가담하지 안는데에 대한 일종의 보복책이라고 볼수잇슴만큼 무자비하고 야비하게 압도(壓倒)식히려는 것이엿다.

이리하야 직원간의 공긔는 삼대삼(三對三)이란 수ㅅ자적 파로 갈리여 얼마를 살풍경한 속에서 흘러가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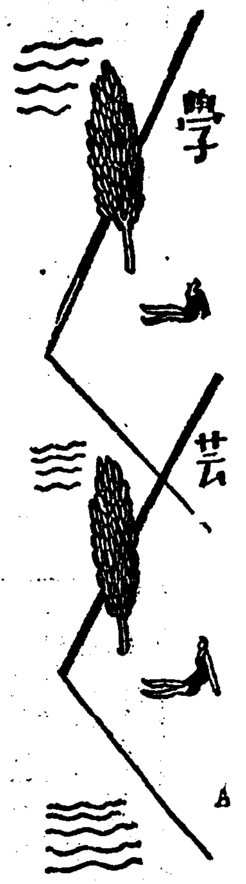
그러자마츰 시학의오시우리엿든 최교원이 자긔시골 간리공보로 취직운동해나려가고 나자 그동업을 벼락 내손으로 끌어들인것이 종호다.

종호를 『강』파의 최대 [illegible] 잇서어 들인데에는 델리케한 내야심이업지안다.

내손으로 사람을썻다고 이 사람이 반다시 내사람노릇을하 [illegible] 것이니 그놈의 성격이 [illegible] 이 얼간땅이일때면 마리 물게(動物界)의바주가리이 도부럿다 저리로 [illegible] 가 업는배가 아니엿만 끌어들인것은 절대로 그럴 [illegible] 가업다는것보다도 또한 좀 성격이팔팔하거나 괴팍스러 그들과충돌이생길 념려 [illegible] 는데서가장 적임자로 해석 [illegible] 문이엿다.

玉碎銀奔!

七月創作評



作品全體를救한 主人公의一片良心

⑤ 李源朝

金末峯氏 作 『苦行』

이作者의 作品은 年前에 어느 新聞紙上에서 본듯한데 그뒤에는 하나도 읽지못하엿다가 오래만에 이作品을 어더읽게되엿다. 그런데 이

作品 게의 內容은 簡單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안해와 귀여운子女까지 둔 사람이 自己의 意志가 薄弱한 탓으로 엇저엇저하다가 낫모른女子에게 誘惑되여서 마음에 업는 三角關係를 맺고 지나다가 하로人밤은 그안해와의 外出할 約束을 저바리고 情婦의집에가서 자다가 偶然히 차저온 그 안해의 襲擊에 놀나서 避身을 하느라고 險한집이라 조그마한 벼장속으로 드러갓다가 가진고생을 다햇다고해서 題目까지 苦行이라고 한것가트나 이러한 意味에서 苦行이라고 하엿다면 이말의

語感 과 이事實과는 주 다른것인 만큼 作者의 유모러스한 所謂이라고 하겟는데 이作品에는 그러한 氣分이 보이지 안는것이 좀이상스럽다. 그리고 이作品의 스토리에 잇서서 매우 重要한 契機가되어잇는 벼장으로 드러가는 場面가튼것은 네전부터 巷間에 도라다니는 淫猥한 이야기속에 얼마라도 잇는것일뿐만아니라 主人公이 그 情婦인미자를

說明 하는데를 본다면 性的(性的)으로 미자가 섯처 내안해보담 훨신 괴교적이오 또 내외를을 사로잡을만한 육적(肉的)패략을 줍니다 하는말가티 아모리생각해도 그다지아름답지 못한말로 說明을 하는것은 實로 作者의 趣味를 알수가 업는것이다. 이러한것은 이와가티 美적못한 도부러진말로서 說明을 하는것보담 이 一點의 美女에 갓가운 미자의 誘惑과 나라는 主人公의 意志薄弱한

意志를 描寫를 通해서 그場面이 讀者의 影像에 떠오르게하엿든들 훨신 더 效果的이오 또한

讀者 의 審美感을 傷하게하지는 안엇슬것이다. 다가튼事實이라도 메주라면 장당그는것이를아는데 콩썩은것이라면 不潔한 늣김을주는 게나 맛찬가지인때문이다. 勿論 나는 여긔에서 作者에게 道學者的 表現方法을 取하라고 强要하는것은아니다. 다만 이러한 事實이라도 더 藝術的讀者이 讀싸하도록 表現할수는 얼마라도 잇다는것이다. 淫猥한 作品으로서 『女子의一生』이든 『보바리夫人』이라든지 有名한 露骨的이오 非美感的인 文句야 잇느냐? 그러나 이作品을 이러한 淫猥한데서 맛침내 幾分間이라도

救出 한것은 이作品의맨 꼿헤나는 안해와 아들을 한꺼번에 안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울엇습니다』 하는 純眞한 告白이 잇는때문입니다. 여긔에서 우리는 主人公이 弱한性格의 所有者이면서 또한 아주 墮落하지못할 귀여운 良心을 가지고 잇다는것을 알게된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도라가서 말하면 主人公의 안해가 미자의집을 밤중에 차저오는 것이 아모 理由가 업다. 이런때에는 차라리 그남편이 미자의집에 갓스려니하는것을 짐작하고 計劃的으로

襲擊 한것이라는것을 뚜렷하게 내보엿든것이 作品構成에잇서서 偶然性을 除去하는것이다.

다음으로 李孝石氏의『聖樹賦』(朝文)가잇는데 前者는 小說이라는 것보담도 作者의 內面的生活의 一斷面을 그 고운筆致에맛겨서 쓴 한개의小品에 지나지못한다 作者도 아마 이것을 小說로서 쓰지안코 이러한 小品이나 隨想으로쓴것을 雜誌編輯하는사람이 小說欄에 너은것이 아닌가 한다. 安懷南氏의 作品은 그야말로

文字 그대로 身邊雜事記이랑 多言할 必要를늣기지안는다. 이밧게도 朴榮濬氏의『어머니』라는것이(朝文)에 실렷스나 默殺程度이고 朱永涉氏의『나루』라는戱曲이『新東亞』에 실렷고 崔丙漢氏의『獄中春香』이라는 戱曲과 朴松氏의『비오는밤』이라는 戱曲이 『藝術』에실렷스나 이 세편은 筆者의 事情으로해서 割愛하지안흘수업다 (끗)

隨想

나의文學前 (上)

許俊

虛無 探求는 悲劇의魂에通한다. 哲學은 到達하기위하야 出發하는 虛無다. 그러나 文學的虛無는 늘 出發하려고 到達함으로 거기에는 完成된 虛無라는것이 업다 — 다음瞬間에는 到達된解決도 업세이지안코는 못배기는 模索과 混濁이잇슬뿐이다. 그럼으로 哲學에서와가티 큰文學에서 透明을 求하는것은 잘못된일이다. 그러케 그코ㅡ스는 언제나 不定한것임으로 一種 悲劇的이라 할것이다

바보는업지만 天才는잇다 그러나 이天才는 바보가낫(畜)는 天才다. 그러고 이바보는 잘 자기몸을 죽일줄아는 바보이여야한다. 괄호어야 잘 나올것이다.

作品은 태여나지만 作家도 태여난다. 다시말하면 作品이 作家를낫는다 — 이것이업스면 文學은 나에게 아모동도 업는것이다 作品이 作家의것이면서 또 그의손을떨어지자 別個의運命을 지고간다고하는것도 實로 이까닭이아닐가. 그럼으로 그는 創造라하여도 結局은 自己創造에急한것이다 藝術家의犧牲이나 自己滿足이라하는말도 이러하여서 當然하게 머리로해서는 아니된다. 心臟 限업시 濕하것갓다

그러나 내생각에는 그 자기의얼골을變更한다

나(生)는 그귀여운얼골을가지고 자기의生을 마친다고하는것을 나는 받듯이 붉어워하지는 안는다 붉어울지라도 그것은 絕望이업슬 붉어움이다 그럼으로 내가 可能하게생각하는 붉어운라입은 일코는 다시 찻지안흘수업는 그런 人物에잇다 왜 그러냐하면 그는 運命에대해서 敢히 工作하는까닭이다

모랄이란것도 亦是 나는 이러케 理解하는故로 文學이 모랄을 目標삼어간다고하여도 조타는意見에 贊同이다 — 도스토이에쁘스키 — 는 이것이 가장 能한作家의하나이엿다.

大體 사람의손을걸고가는 惡魔의心臟에는 아모런 죽일도 必要치안흔 것으로 이거는가 그러고 死海와가티 거기서 사람은『모ㅡ든希望을벌이어야』한는가

納涼隨筆集 ……(6)……

올해는어데를? 夏節과地理的去就 (下)

金晉燮

忽論, 이곳이 멀다 하드래도 避暑所가 首都京城이 아니냐. 그가 餘暇를어데, 서울을 찾을이 또한 맛당하다, 하고 내가그를 同情과 共感의 마음으로크게 歡迎할것은 두말할것이 업다 그러나 알고보니 事實은조然히 그反對이엇다 그는今般元山으로 轉勤이되여 赴任途中, 一時이곳에 下車한것이라한다. 따는

避 暑를 目的하는 場所의이요, 避暑地는 元山이다, 그는 有名한 海水浴場에 말하자면 一時的 永住의 地를 定한 것이다. 나는 實로 부럽다 나의 무더운 書齋의

술수 잇기보담은 더욱만히 그의 季節的 乃至 地理的 幸運에 驚歎치 안흘수업섯다. 事實에잇서서 그가또한 그의偶然에 狂喜하고 잇는樣에는 少毫의 無理가 업섯다. 그러나 나는 限업시 더울뿐이다. 그가 시원할터인 까닭으로 못업시 내몸이 더욱 더위를 늣긴다는것은 또한 異常한일이다. 사람들이 山이라, 바다에서 여름을 避하는데 우리가 몯지속과 거리의 雜沓에서 여름에 直面하고 잇는 사이에는 元來 結果에 잇서서 그곳에

相 當한 距離가 잇서야 할것이다. 方法如何에 依해서는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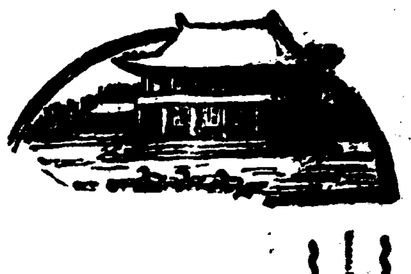
旅行에서 엇는힘은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輕視치 못할 基礎를 將來에 向하여 얼마든지 提供할수가 잇다. 나는 여기旅行의問題를 問題삼아 假令 일즉이 偉大한 人物들이 旅行을 契機로하고 그以前과 그以後에 얼마나 顯著한 精神的變化를 보이고잇는가에對하야 區區히論證을 求하라고는 하지안치만 요사이흔이보는 旅行에는 流行的氣分이 多分히加味되여 實際的用務를遂果하드시 이것을해버리는 傾向이濃厚하다. 너머나旅行하기가쉽고너머나자조 旅行하는 까닭으로서 反對로旅行의 價値를 沒却하는盛弊이업지안타. 올해도旅行欲을實行치못하고 그러나欲내가장판우에드러누어 생각하는것은 「내게眞ㅡ도피」

時 間마잇고 보면 단벌칠 사이라도 다른사람들이 公公務하드시 려케公式的으로는 이것을하지안코리라는原則이다. 우리는떠나며나

만히그들이旅行하기前에어데를가는것이조흘가하고 旅行地選擇의 件에對하야論議하는것을듯는다. 그러나甲論乙駁의 이러한喧騷는 結局 無意味한音響에 不過한感이업지안타. 旅行이란 大膽, 사랑할무엇, 아름다운 무엇이아니냐? 우리가計劃하고잇는 旅行이란 말하자면 거의一新婚에 恰似한무엇을가지고잇다. 나는 그를사랑하고, 그는나를사랑하는 女子를 우리는 다른사람의 忠告에依하야 찾을까닭이 어데잇슬가? 우리가 사랑할수잇는것을 스스로 求하여야할것이다. 旅行이란

自 由가 잇는 意外의 趣味도잇다. 우리가 아니면 드듸여 一歲에 「小春비스」가되고 「小바스코·다·가마」가되는 길을 旅行에서찾지안는다면 果然 旅行의 本質的價値는 那邊에存在하겟는가? 나는 어떤지알수업는 나의저편을 向하야 어디인가를 아즉 날을 참을수업슴을 늣기는데 어떤旅行가 必要치안

—(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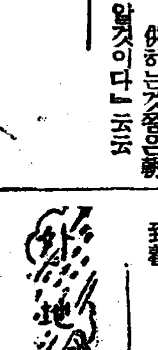


『싸베ㅡ트』의

寺院再建

◇그러나國是는如前◇

(키코프發)『키코프』의『쎈트·쏘피안』寺院은『러시아都市의어머니』라고해서 일직부터『러시아에잇서는『카트릭敎의 大本山이엇는데 建立以來벌서 九世紀를 經過하고 破損의 程度도 甚하다 때문에 『싸베ㅡ트』政府에서는 大大的으로 寺院修理를하기로 決定하고벌서 修理費 十三萬五千『루ㅡ블』을 今年度豫算에 計上하엿다 그러나宗敎는阿片이다라고하는『싸베ㅡ트』의 國是는 勿論아니고 同寺院에 잇는歐露第一의 書庫 『모자이크』와 『프레스코』壁畫를 保存하려고하는 學術的 歷史的見地에서 計劃하는것이라고한다.



古建物巡禮 (16)

風雲劇을비저낸 太僕司

湖岩

百子千孫하리라는 [illegible]功臣의 遺傳의 집터이 그만遺傳이 물러죽은뒤 太僕司란官衙가 되여 牧畜의繁殖을 꾀하니 陰陽家의 豫言이 맛지안흔것이 아니나 다만 사람의

百子千孫이 짐생의百子

千孫으로 밧귀엿슬뿐이다 오늘날은 太僕司가 또한번 變하야 壽松洞公立普通學校가되고 말엇다 그러나 多數의子女를 敎育하는 點에서 역시百子千孫의 意義를 차고도는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 말하려는것은 百子千孫의陰陽說그것이 아니요 이집에서 일즉近代史上 驚異인大院君이 一大政劇을 비저내든 그 秘密한會議이다 때는哲宗末年이니 大院君이 興宣君으로잇서 아주零落햇슬적이다 아무리零落햇스되 君이라 언제인가

健元陵以下 九陵의祭官

으로 가섯는데 모든陵을 차례로 돌다가 한陵에 이르러 비를 맛나매 할수업시 거긔서 數日滯留하는동안에 大院君이 陵參奉李鎬俊으로 더부러 잘알게 된바 大院君과 李鎬俊이 偶然한 機會에 이처럼 서로接近하게된 것이 將來宮廷을 움직이는 原動力의 契機가 될줄이야 누가 알엇스랴 그後大院君이 太僕司(元名司僕寺)의 提調가 되자 곳 李鎬俊을 불러드려 太僕司主簿를 삼으니 대저提調는 上官이나 零落한 王族으로도 할수잇는 벼슬이요 主簿는 屬官이나

좀처럼하기 어려운淸官

이다 大院君이 李鎬俊을 主簿로 삼은데는 그裏面에는 政治的意味도 包含하엿스니 이로부터 展開되는 事實에 依하야 明白히 看取할수잇다 大院君이 李鎬俊의 아들을 自己사위로삼기는 훨신 後日의일로서 이때는 아즉婚約을 하지못햇슬적이나 두사이에 [illegible]를 하려마음이 두러워섯다 더구나 李鎬俊의사위 趙成夏는 神貞大妃의親庭조카라 宮中에 자주드나들며 神貞大妃께 無時하고 謁見함으로 機會는 매우 조화섯다 大院君이 李鎬俊과 속삭여 趙成夏와 한다리를 건내기만하면 곳神貞大妃께 닷케된다 둘이 趙成夏는 太僕司와 宮中에 와다갓다해도

嫌疑를밧지 안흘處地에

잇슴으로 機密속직히는데도 가장便宜하엿섯다 當時宮中情勢를 一言하면 哲宗께서 [illegible]末에 後嗣가 업슴으로 一部에서는 宗子를세우자는論까지 일어낫스나 國舅金汶根의 反對 때문에 흐려지고 말엇다 그 實은 國舅께서 아즉 春秋가 젊으시드러 大王의病을 [illegible]하시기에 깁엇하야 繼統을 정하는것은 [illegible] 中에서 神貞大妃언분이 哲宗一代에는 失意의境遇에 놓이니마치 그우이 不平이엇지못해스니 그

大統入承이 順序로는당

당이 憲宗이나 哲宗이나를 承統할것업에도 不拘하고 翼宗뒤를이을 맛이 翼宗의承統을 하게되것은 純元王后의 命으로 그리되것이지만 不合理한일이다 이때문에 憲宗妃로 憲宗繼后이신 神貞大妃는 純元王后에게 항상 눌리여 지냇스니 어찌不平이 업겟느냐 神貞大妃의 이機微를 잘看破한이는 大院君이라 明敏果敢한 그

남모르게 하야 하다는意圖

하다는[illegible]을 [illegible]로해서 自己의第二子 命福君(高宗)으로 神貞大妃께 繼統을 하도록 하기로 하얏섯다 哲宗이 昇遐하면 곳그때 神貞大妃께서도 哲宗이 昇遐하면 곳그때 翼宗大妃로 玉璽부터 거두라고 神貞大妃께 여자오것도 大院君이엿고 심지어 翼宗의第二子로서 翼宗의統을 入承케하라는 諺文敎旨까지 미리 써서바치게쯤 用意周到한데 對해서는 놀라지 안흘수업다 그리하야 高宗이 即位하고 大院君이 登場하야 多事하든 最近史의 序幕이 열리게 되엇지만 이政治上 風雲劇을 비저낸곳이 녯날功臣遺傳의 집터이든太僕司인줄을 알어야 하겟다。

百子千孫이 정생의百子

千孫으로 밧귀엿슬뿐이다 오늘날은 太僕司가 또한번 變하야 壽松洞公立普通學校가되고 말엇다 그러나 多數의子女를 敎育하는 點에서 역시百子千孫의 意

民〃謠〃採〃集〃記

—慶北地方을中心으로—

城大文學部 金思燁

『朝鮮에서는 民謠가 언제부터 發生되며 이民族의 口謠에 오르나렷슬가?』하는 課題에對하야 或者가말한 『哲學이며 宗教가 存在하지안는곳에도 民謠는잇다。民族의입흥이잇고 言語가 잇는限 그곳에 民謠가 업슬수업다。』 더욱이 朝鮮民謠는 이明白한 常識에 돌기를決코快히 여기지안는다 이치안라 는生覺이不凡한말을그대로 首肯한다면 朝鮮民謠의起源도 長久한 生命을가졋슬것이며 民族性에 民族民謠가 잇고 愛國에 愛國民謠가잇는 것과가티 必然自明한事實이며 同時에 그대로看過할수는 업는 重要한 現實임에 틀림이업다。

우리는 記錄된 歷史를 通해서 或은 考古學的資料인 墳塚이며 繪畫 彫刻等을 살핌으로써 燦爛하나마 過去의世態를推測할수도잇고 잘난人物들의 빗난事蹟을 읽어欽羨도하며 優秀한 美術品에對하야 驚嘆도할수잇스나 한거름기피드러 그民族의 長久한 歷史를 通해서 짜아낸 心情의記錄 即 다시말하면 그民族의 內面生活을 記錄하고 本能을表現하며 純眞한 情緖를 表出하야 愉悅을 彫象하며 그사는 環境을못내하며 즐거워하며 或은 슬퍼도하고 嗟息도하는가운데 自然히 이루워진 民族的 詩情流露의 音樂을 살피라면 그나라의 民謠를두고 업스리라。

이런 角度로民謠를 볼때우리는 『民謠는 民族이 屬하는 國土의東西를 勿論하고 그民族의 國語 或은 環境의相違에不關하고 人類가 古來로經驗해오고 感得해오며 現在도갓고 各己진이고잇는 情緖를 印象을 表出한다』 『느ㅡ빠난노ㅡ』의民謠에對한定義나 『民謠는 其國民의記錄이며 其歷史의 光榮이며 民族의 喜怒哀樂, 生에서 死에의 人生의內的 生活의 影像이다』 라고한『헤ㅡ두』의 말을그대로承認할수잇다. 누구에게 내여노와도 자랑이 될 鄭澈의松江歌辭며 尹善道의 孤山歌曲가튼것이 우리가 즐기고後世에까지 남길貴重한 寶物인 同時에 朝鮮의 가장 優秀한 文學이 아니며 이의硏究가 必要치안흔배안이나 이와同時 우리는朝鮮民族이란 一團의 思想感情가운데 醱酵되며 純眞한 情緖의 表現이요 民衆의歌謠인 民謠에 對하야 硏究의必要가 더緊切하고 重大한일의 하나이다。

그것은 그時代에 適合한 言語와歌詞로 짜여진詩形과 鄕土와 風俗에일마즌 律動과旋律로 되여와섯슴으로서다。

이제 筆者는 今年夏休間 慶北各地方民謠採集을 擔當하야 筆者의故鄕인 金泉을爲主로 實地 그地方에이르러 그地方人士와接觸하면서 採集하든狀況中 第一次코ㅡ스(漆谷郡石積、仁同兩面을中心으로採集한)의 採集狀況만 이에적어 江湖에알리고저한다。(貝滋、吳泳鎭、李在洙諸兄의 報告를기다린다)

×

七月二日 날새가흐리고무덥다 午前아홉時五十分 金泉驛에서 大邱行의 가마가튼汽動車를탓다。요지음은 三日來 비가오신탓일가 車窓에서 내여다보이는眼前의 논은 벌서以前에 移秧이 順調로되여 至今은 푸르도록 싱싱하게자라잇서 첫논매기(第一次除草)까지 맛친듯하다。 그럼께다 벌서첫논매기논』다마치고 두벌논매기를 바라볼때가아닌가。

唐突히 軌道우를 달리고잇는 玩具가튼 우리汽動車를 奇異하다는듯한 눈으로 한눈없을 멈추고보고잇는 農夫들의 해볏에

伊太利의『에』國攻略은

拳鬪慘敗의復讐인가?

—『로ㅡ간』敎授의豫測에서—

【보스톤發聯合】 伊太利의巨人『부리모、카르네라』와 黑人『루이스』와의 重量級拳鬪試合은 지난 六月廿五日밤 『뉴ㅡ욕야키ㅡ스、스타지엄』에 行햇는데 『카르네라』는 最初부터『루이스』의 猛擊을바더서 입설을 쨋고 연해서 『곡따운』이되여서 六回째는 벌서『녹크아웃』이되여 慘敗하고 말엇는데 『아드라란타』大學의『로ㅡ간』敎授는 이 『카르네라』의慘敗가 『뭇솔리니』首相의 對『에디오피아』政策에 影響이잇지 안흘가를 가장 憂慮하고잇는사람이다。『로ㅡ간』敎授는 自身이 黑人이나 먼저 『웨스레ㅡ』大學의 『뉴ㅡ잉글란드』國際關係硏究所의 年次 大會에서 黑人問題에 言及하엿는데 伊太利는 매우 體育을 奬勵하고잇스나 伊太利의 一人者인『카르네라』가 黑人『죠ㅡ루이스』에게慘敗한結果『에디오피아』侵略政策을 더욱強行하게되지나 안흘가 매우困難한것이다. 아마『뭇솔리니』는 伊太利國旗에 對한 새로운 侮辱이라고해서 國民의 民族的偏見을 煽動해가지고『에디오피아』攻略의 材料에 供하는것을 잇지안흘것이다 云云

車中快走스켓치

咸鏡線에서

佛專 咸亨洙

1 자리를 내여주니 저줏거리다가 안즌 村갓시는 될수잇는 대로 나의 視線을 避하려고 애썻다。

2 집 보담도 白楊나무가 만흔조 그만마을이 잇다。

3 공손히 담배불을 빌려준 계집처럼 생긴巡査。

4 크다란 村색시 하나 부끄러워도 안하고 국다란 두다리를 잔디우에 뻐더버린채 泰然히 汽車를 처다본다。(이 亂暴하고도 無禮한 過客 안에는 禮儀가 必要없다고 생각한 게지)

5 논(田)두덩에 쉬면서 理由모를 빙긋웃음을 車窓에 던지는 얼굴 시거믄 村내외

6 넓다란 新作路를 列을 지어가는 거러지의 一群이 잇다

7 거츨은 長箭灣의 온나는 놀이의 얼굴을 도리켜하며 [illegible] 漁業以上으로 어떤가지 [illegible] 現唱。

8 [illegible] 떠러지 잇는가 보아서 바다가에서 작난치는 거집아이나 사내아이나 [illegible] 일은 하나도 업다。

9 나이린 보통학교생이 門을 열어주어서 겨우 老人은 [illegible] 들어가다。

10 누ㅡ런 니빨을 보이면서 구구히 [illegible]에서 [illegible]을 하는 村할머니가 잇다。

11 크다란 돌(石)을 그냥 내여버려둔 山허리의 조이밧에 할아버지 한분이 긴 담배를 피우고 안젓다。

12 偉大한 夫婦와도 갓치 두개의 큰 바위가 바닷가에 서잇다。

13 늘 꿈 꾸는듯한 눈맵시를 하고서 나의 겻헤 안저잇던 색시는 기처로 昇降口에서 이쪽을 도라다 보고 말엇다。

14 捕縛되여서 汽車에 오르든 陰凶한 눈빗을 한 罪人은 우리들의 車輛에는 들어오지 안헛다。

15 컴컴한 돈네루속에 들어가면汽車는 가뿐 숨을 쉰다。

16 漠漠한 솔밧우에 바다가 잇는 곳。

17 한록커의 高浦港을 車窓을 向해 자랑하면서 귀엽게 웃어보이든 바지저고리의 少年

18 오랜 절도사碑들이 쓸쓸하게서 잇는 고향山이 보인다。

1 흔들리는 車안에서 까지 算盤알을 튀기지 안으면 안될 人間이 잇다。

2 어제날 故鄕색시 지금은 어린아기를 안고 나를 모른다。

3 소(牛)를 치이고 停車한 汽車는 요란과 不安을 실고 다시 發車하엿다。

4 아모리 安心식혀도 마음조리는 나릴데를 지나탄 村 어머니가 잇다。

5 꼴재기를 빠저 물(江)이 보이니 車안은 별안간 밝어 진다。

一九三五、七、七、午後一時南陽到着

夏期定規

歸鄕文藝

投稿歡迎

1、隨筆、日記、紀行、實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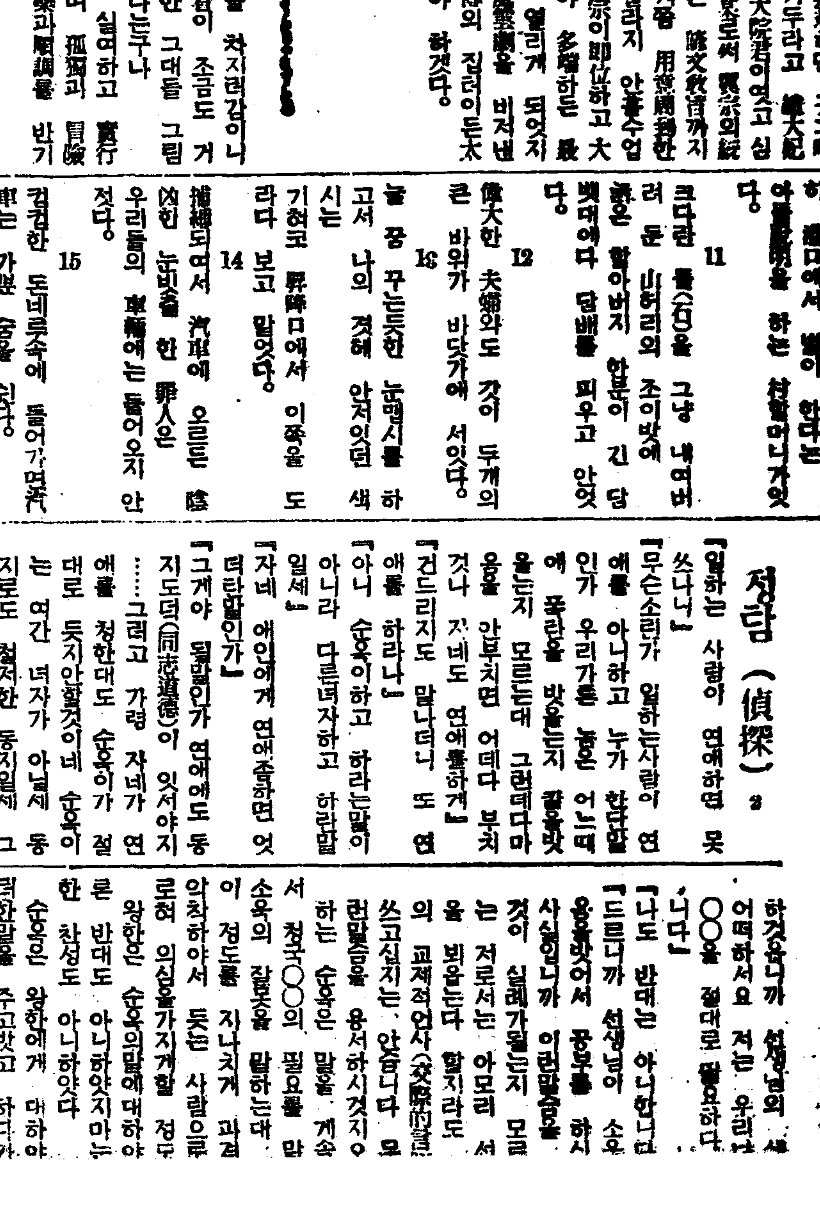
2、專門學校學生程度以上

3、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4、寫眞添付도無妨

(但原稿取捨는本社自由)

朝鮮日報社學藝部



英大使夫人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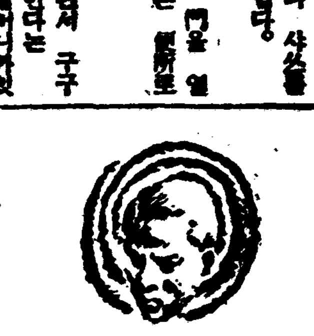
作品發表會

—佛京巴里에서—

【巴里發聯合郵信】巴里駐箚英國大使로서 歐洲國際情勢의 紛糾를 告하는이때 外交界에 大活躍을하고잇는 『써ㅡ·죠ㅡ지·크라ㅡ크』氏의 夫人은 作曲家로서 有名하다 이번에도 陸軍孤兒院의 基金募集에 夫人의 作曲發表演奏會가 『세르콜·앙떼아리에』에서 열엿는데 音樂批評家들에게서도 자못 好評을바더다고한다 演奏種目은『피아노』細曲、『세르』曲의『라멘트』、『스코스오』歌曲이를、노래와 『프르ㅡ드』의 『듀엣트』『小鳥와少女』等으로、노래는 『그란드、오페라』座의 『이보ㅡ느、가르』嬢이 부르다고한다。

新刊紹介

▲朝鮮(月刊) 七月號 朝鮮總督府發行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販賣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番



黑風

韓龍雲 作 金熊超 畵 (81)

정탐(偵探) 2

『일하는 사람이 연애하면 못쓰나니』

『무슨소린가 일하는사람이 연애를 아니하고 누가 한단말인가 우리가튼 놈은 어느때에 포탄을 밧을는지 칼을맛을는지 모르는데 그런데다마음을 안부치면 어데다 부치것나 자네도 연애를하게』

『건드리지도 말나더니 또 연애를 하라나』

『아니 순옥이하고 하라는말이아니라 다른녀자하고 하란말일세』

『자네 애인에게 연애를하면 엇더타할말인가』

『그게야 될말인가 연애에도 동지도덕(同志道德)이 잇서야지 ……그러고 가령 자네가 연애를 청한대도 순옥이가 절대로 듯지안흘것이네 순옥이는 여간 녀자가 아닐세 동지로도 철저한 동지일세 그런줄 알고서 교제하게』

『처음만나고에 하늘가티 큰일을 그릇치는것은 흔히 꼿가튼 녀자이것을 일하는사람은 이즐수가 업는것일세 미인이라는 것은 밧듯이 마음까지 아름다운것은 아닐세 현명가라고 연애를 못할것은 아니나 녀자의속을 깁히알지 못하고는 사랑하기가 어려운것일세』

하는 왕한의말은 실로 우연히 한 말이엇스나 무슨 암시와 가티 성원에게 충동을 주엇다 그리하야 성원이도 흥연히 왕한의말을 엄숙하게 드럿다 그러나 두사람은 웃고 헤여젓다

며칠후에 순옥이가 왕한을 차자왓는대 포도주 한상자와 과자 한갑을 가지고와서 왕한은 순옥의 뜻을 감사히 생각하는동시에 정원의 부탁을 생각하야서 진심으로 친절히 접대하얏다

『선생님 우리나라일에 대하야 엇지생각 하십니까』

하는것이 순옥의 첫인사뒤의 말이엇다

『특별한 생각이 잇습니까』

하는 왕한은 솔이하게 마음을 말하지 아니하엿다

『청조의 정치가 부패하야서 사억만 인구가 도탄에 드럿는대 ○○을 아니하고 무엇을 하것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서요 저는 우리는 ○○을 절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도 반대는 아니합니다』

『드르니까 선생님이 순옥을 붓어서 공부를 하시는 사실입니까 이런말슴을 것이 실례가될는지 모르나 저로서는 아모리 서울 배울는다 할지라도 의 교제적언사(交際的言辭)를 쓰고십지는 안습니다 모런말슴을 용서하시겟지오』

하는 순옥은 말을 게속하야서 청국○○의 필요를 말하는대 순옥의 잘못을 말하는데 이 정도를 지나치게 과격하야서 듣는 사람으로 의심을가지게할 정도로 악착하야서 왕한은 순옥의말에 대하야 반대도 아니하얏지마는 찬성도 아니하얏다 순옥은 왕한에게 대하야 려한말을 주고밧고 하다가 엿히 말머리를 돌녀서

『선생님 객지에서 고적하시지요』

하서요

『학교에다니고 학교에서 친구교제하고 별로 고적하지 안습니다』

『무엇 그러서요 아모리 시기로 고적을 모르도록 부실리가 잇스며 또는 고적이라는것은 한가한 사람에게나 만 잇고 밧분사람에게라고 업는것은 아니것지오 한가하고 고적이라는 의미가 다르니까 아모리 한가하야도 애인이 잇스면 고적하지 아니하고 아모리 밧바도 애인이 업스면 고적하것지오 아마 선생님은 밧버서 고적을 늣길 시간이 업는것이 아니라 애인이 잇서서 고적하지 아니한것이지오』

『학교교과서와 친구교제가 나의 애인이라면 모르지마는 그밧게는 애인이라고는 별로 업습니다』

하는 왕한은 한편으로는 순옥의 애교에 대한 한편으로는 순옥의말을 상하게 생각하얏다

순옥은 오슴을 띄우고 갓틀게 보는 시선이 잠을경을 처서 왕한의 눈섭우으로 미끄러진다

東德川左岸堤防 道當局서撤毀命令

住民들의陳情奏効

【新興】 귀보=신흥읍(新興邑)의 주위를 싸고 도는 동덕천(東德川)의 외인편한갈래를 가로막음으로 인하야 그하류지방에 잇는 황무지를 개간코저 소화팔년 여름경에 홍파일(洪光一)씨외 삼십구명의 명의로 함남도에 허가를 어더 축조한 동덕천좌안제방(東德川左岸堤防)은 읍내로 하여금 홍수의 위험을 일층 느끼게한다하야 읍내주민들은 도당국에 대하야 좌안제방철괴를 루차 진정한결과 함남도지사로부터 지난 이십팔일까지 좌안제방은 하천보존상(河川保存上)장애가잇스니 철거하라는 엄명을 발하엿다 그러나 그 철거기일인 이십팔일을 지나도 하등철거를 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십구일 동고천면(東古川面)회의실에서 읍민유지가 모히어 이문제를 토의한결과 방금 강우기(降雨期)이므로 그철회까지기다릴수업스니 읍민전체가 총동하야 즉일로 강제철회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회의실에 모히엇든 사람들은 장사진을 처가지고 제방을향하야 출발하든중 돌연 동면장으로부터 군당국의 의사라고하야『좌안제방을 철회하야 허가위치에 싹케한다면 읍내는 오히려 더욱불리하니 차라리 타협하야 묵과함만 갓지못하다』하는 의미의 말을 전하므로 공문상으로는『하천에 지장이 잇스니 철회를 엄명한』하고 다시 태도를 돌변하야 타협을 주장하고 가튼의사를 보이는 당국자의 심사를 알수업다하야 물의가 분분한중인데 그사태는 자못 험악하여 가는것만은 사실로서 그전개여하는 의연 주목을 끌고 잇다고한다

平壤府를中心— 頻頻한山獸出沒

今番에는山猪가橫行

【平壤】 모란봉(牧丹峰) 공원에 산고양이의 출현으로 평양시내 만시민이 불안한가운데에서 이약이거리가 되어잇는지금에 부외 대동군재경리면 송림리(大同郡在京里面松林里)일대에는 이즘 어미, 새기, 세머리의 산도야지가 출현하여 각자 종방등을 하로저녁에 매배평식 쑤시고 뜨더먹어 피해가 막심하다하여 부락민은소관대동서에 퇴치진정을 련서로 제출하엿다한다 그러고동군 룡악면(龍岳面)에도 수차 산도야지가 출현하여 농작에 피해를 주어엇다는데 이로 인하여 부근농민들은 성숙긔의 곡물을 두고 여간공포에 빠저잇지 아니하다한다

生活難으로 三十壯年自殺

【德亭】 생활난과 가정불화로 삼십장년이 음독자살한 사건이 양주군하에 발생하얏다 지난삼십일 오후아홉시경 양주군 회천면 고암리(楊州郡檜泉面高岩里) 정연수(鄭然洙)(三〇)로 항상 가정의 불화과 생활난으로 세상을 비관하든 끗헤 다소정신에 이상까지 생기여 다량에『칼모진』을 먹고 그와가티 자살한 것이라한다

長惠線交通杜絶

【咸興】 혜산토목관구로부터 함남도토목과에 도달한 전화보고에 의하면 지난 이십팔일밤 부터 내린 호우로 인하여 장혜선(長惠線)이동도로는 산봉(山峯)상리개소(연장거리륙백메돌)암거류실 이개소로 목하교통은 전연 두절이 되엿다한다

本報尙州支局主催 咸昌水泳大會

오는八月十一日에

【尙州】 본보 상주지국과 동업 조선민보 상주지국 (朝鮮民報尙州支局) 공동주최와 상주역(尙州驛) 후원으로 오는 팔월십일일 오전아홉시부터 함창면태봉리(咸昌面胎封里)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한다는데 특히당일은 일반의 편의를 위하야림시렬차를 운전하기로 되엿고 함창역(咸昌驛)에서 태봉 까지는 자동차(自動車)로 련락케 되엿다는바 화물자동차는 무료로하고 승합자동차는 왕복 이십원이라 한다 그리고 당일의 경기는 여흥으로 행운권 (幸運券)찾의 수박 던지기 보물찾지 잉어(鯉魚)잡기 수영경기(水泳競技)등으로 회비(會費)는 대인 오십전 소아 학생은 이십오전이라 한다

賃金引上을要求코 運轉手突然盟罷

警察은調停에努力

【順天】 지난 이십칠일에 전남 순천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운전수들은 맹휴를 단행하엿다는데 그내용을드르면 근래의 호경기로 영업자측의 리익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수보수는 매달이십원가량에 불과하고 다른자동차 운전수보다 운전시간이 일정치못하므로 주야구별업는 로동에 보수는 그가티박함으로 생활할수업스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엿스나 영업자측은 이에불응하므로 그가티 맹휴를 하엿다는데 당시경찰서에서는 쌍방을 중재하여 원만해결에 극력중이라한다

下南水防團組織

【守山】 지난해 홍수에 먹을것과 입을것을 수마에 다빼앗기고 생사의기로에 서서 방황하고 잇는 이때 하남면에서는 이래 수방단 조직에 노력하고잇든바 그 부서가 완비되엿슴으로 지난칠월이십오일 오전팔시에 하남수방단장 산본종계(山本種季)이하 원외사십여명이 하남 소학교에 모혀 방수에대한 토의가 잇섯고 따로주사잇 대평동 모래밧헤가서 실지연습과 동시에 하남 수방단 발단식을 거행하엿다고한다

黃金町夜市開市

【咸興】 함흥의명물 황금정야시(黃金町夜市)는 황금정번영회주최급 함흥상업회의소후원으로 팔월일일부터 월말까지 삼개월간개시하기로되엿다

◇鑛夫一名慘死

【芙江】 지난 이십구일 청주군부용면외천리(淸州郡芙蓉面外天里)에 거주하는 박수근(朴壽根)(二七)과동면동리김천화(金千化)(二七)량군은 외천리 직원근씨의 광산에 광주의 눈을 피하야 르차감석을 따오든중 이날도 전날과가티서로 도굴코저 감석을따고 잇든중 광혈이문허지면서 박수근은 무참히도 즉사하고 김천화는근근생명만은 건지엇다한다

猛威의咸南痘瘡 國境地帶로漸進

罹患者累計가四百名에接近 死亡者總數一二一名

【咸興】 함남도의 두창(痘瘡)은 갈수록 그칠바를 모르고 창궐하는일방인데 이십팔일까지의발생루계삼백구십팔명이며 그중사망자 일백이십일명의 다수에달하는데 현재는 혜산(惠山)등국경지방에 만연하고잇다한다

三氏滿期出獄

赤色學生事件

【利原】 함남 북청 적색학생(北靑赤色學生)사건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고 사년동안이나 옥중 생활을하던 좌긔 삼씨는 지난 칠월이십구일에 출감하엿다 한다

北靑郡厚昌面貧洞里 朴基鶴(三一)
利原郡東面東里 金泂烈(三一)
利原郡西面南面里 張斗淸(三一)

採鑛中慘死者

【大同】 삼십일일오전십일시이십분에 대동군림원면 삼신광업소 신항좌오편에서 채탄작업을 하든중 천정에서 탄괴가 문어저 사인이 작업하든중 한상진 (韓尙珍)(二三)은 무참이 못처서 죽엇는데 전긔한상진은 대동군림원면운성리에 본적을 두고 삼신광소에 로동하던사람이라한다

容器를挾雜한 燒酒仲介業者

數十名을檢擧嚴調

【平壤】 대동서에서는 이십구일 이래 대활동을 개시하여 평양부내에서 소주중개업을 경영하는 김룡규(金龍奎)(三四) 오병준(吳炳俊)(三六)김중려(金仲呂)(三二) 오병욱(吳炳旭)(三四)등 수십명을 검거하여 엄중취조를 진행중인데 전긔소주중개업자들은 소주 한말(斗)에 사원오십전을 주고 사다가 소매상에게는 사원칠십전에 파려넘기는터이나 원체경쟁이심한터이므로 불과에 팔고 잇는자들까지 잇섯다

그러나 상당히 여유잇는 생활을 하고잇는것이 수상하다하여 내용을 조사한결과 양철(洋鐵)노만든 용긔(容器)속에 가지각색연장을하여 용량을사긔하든것이판명되어 대검거를보게되엇는데 로 사홉내지오홉까지 용량을속여하는 장치를 만들고 삼, 사십개도 압수햇다한다

市日變更紀念 脚戲大會開催

【吉州】 길주군 금천시 번영회 (吉州郡錦川市繁榮會) 주최로 시일변경(종래에는 오일, 십일이던것을 이일, 칠일로) 실시기념으로 오는팔월오, 륙량일간 각희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예긔한다하여 상품으로는 소미(小米)외 부상도 풍부하다고한다 동시에 사일간 축우매매자에게는 경품권을 진정하야 추첨거행하리라 한다

平北道內에 僞造貨幣流布

【新義州】 지난이십칠일 평북철산군 참면동부동 (鐵山郡站面東部洞)김시학(金時學)은 담배 판돈을 계산하든중 그가운데에오십전짜리 위조은화한닙이 섯겨잇는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야 그출처를 조사중 자성군 중강면 중평리 (慈城郡中江面中坪洞)강희주 (姜熙周)의 담배가게에서도 역시이와 똑가튼 위조은화한닙이 또발견되얏다 이위조은화는 대정십이년의 년호를 색이것으로 주형(鑄型)이 똑똑치못한것으로 평북도내에 상당히 만히 류포된듯하야 당국에서는엄중조사중이라고한다

長淵支局主催 納凉音樂盛況

聽衆이千餘名

【長淵】 본보 장연지국주최 장연시민 납량음악대회는 예정한바와가치 지난 이십구일 저녁아홉시반부터 오형태씨의 사회로 개최하엿섯는데 숙련된 선천신성학생음악단원 일동은 순서마다 대환영을 밧엇섯는바 특히 백재(白再)군의 페너독창과 방아타령의 관현악은 재청을밧어 대호평을 사섯다는데 당일회에서는 희가극『아하네가볼』상연하여 일반을 웃기엿다는데 청중은 장내장외를 합하야 무려일천오백여에 달하는 대성황이엿섯다한다

그女子의一生 (172)

방랑편

春園 作 夕影 畵

마삭을 바라보는 금봉은 귀신이 다 되어엇다 아침마다 하던 단장조차 페해버리니 그때케 꼽던 살시빗도 누르스름하게되고 얼골에는 여기저기 죽은깨조차 보엿다.

『요년, 요년 요 웬수여년이!』

하고 어찌다가 어미 것헤 오는 정선을 욕설하고 따리는일도 종종 잇섯다.

뱃속에서 더욱 귀운차게 떨떡떨떡 노는 아이도 금봉에게는 무슨 징그러운 원수만 가탯다 웨 이것을 떼어버리지를 못햇던고 하고 금봉은 혼자 몸부림을 하며 화를 내엇다.

『이것들이 자라기로 무엇을 하나, 일생을 천덕군이로 지날것을』

하고 금봉은 자긔가 학교에서 『기생 딸, 기생 딸』『첩년의 딸 첩년의 딸』하고 아이들헌테 가슴쓰린 수모를 당하던 일을 생각한다.

『그 여편네 애가 떨어지기나 햇으면』

하는 생각이 날 때에 금봉은 몸서리가 첫다. 내가 첩년이 다 되엇고나, 악한 계집이 다 되엇고나 하고 하늘이 무서웟다.

세상을 다 등진 금봉을 차자올 사람은 하나도 업섯다. 가끔 가회동시집 수다스러운이멈이 와서는 듯기 실흔 소리를 퍼트리가지고 나온것 가티느러노코 갈뿐이엇다.

『우리 아씨께서는 삼청동아씨 어떠시냐고, 무얼 좀 잡수시느냐고 노 걱정을 하신답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엿다.

『참 우리 아씨는 인자하서요 삼청동 아씨도 인자하시지만』

이런 소리도 하엿다.

『그년이 요담에 오거든 아가리를 찌저주어야』

하고 금봉네할멈은 금봉을대신하야 분개하엿다.

『식은 밥덩이 어더먹기는 제나 내나 매한가진데, 무얼 어젓지안케 큰 집 하인이로라고사람을 깔보고』

하고 할멈은 혼자 게두덜거렷다.

금봉을 차자오는 친구가 하나 생겻다 그것은 동네에 사는 어떤 젊은 부자의 마마님이엇다. 그는 나이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한참은 기생으로 이름이 놉핫고 지금은 부자로 이름이 놉핫다. 그는 자식업는 젊은 부자에게 아들을 나아주어고 또 여러 일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양자후보자인 조카를 물리치고 제가 나은아들을 적자로 입적하는데 성공하엿다. 그리고 그는 어찌어찌하야 남편에게 수천석을 제 명의로 옴기는데도 성공하엿다. 그는 매우 큰 수완가엿다. 그는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여러가지 부인단체와 자선사업에 돈을 내어서 중요한 인물이되엇다. 그는 처음에는 피아노스소리에 금봉의 집에 흥미를가젓고 나종에는 하인들의 연락으로 그피아노 소리가 유명한 이금봉의 손에서 나오는것임을 알고, 하로는 집구경이라 칭하고 차저들어와ㅅ다.

멧번 내왕에 금봉은『태종이 어머니』라는 이부인과 친하게 되어서 금봉은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는 금봉을 동생이라고 부르게까지 되엇다.

『내가 아오님 어머니를 여러번 봣어다우. 어렷슬때지마는그아주머니야 거문고 잘 타시기로 유명하섯다우. 나도 그 아주머니 거문고 타시는걸 들어보앗지마는 참 잘 타섯거든. 나도 배우긴 그때에 거문고를 배웟지. 바루 아오님 어머니 선생이 내 선생이야. 아오님은 모르시겟지마는 성경산인이라고 이름이 서팡옥씨지. 우리 배울 때에는 아주 늙은이야, 파파노인이야. 그래도 거문고애는 오백년에 제일이라거든. 그 어른 말슴이, 당신이 거문고를 여러 사람 가르처보앗지마는 민계향——아차 실례——아주머니 성함이 그러시지 안소? 그 어른만 하신이는 처음 보앗노라고. 아까운 재조가 고만 거문고를 노앗다고 우리보고 노 그리섯다우. 얼굴도 잘나시구. 그랫는데 어쩌면 굴세 이러케 아오님을 만나게 되엿선』

하고 진정으로 반가운 태도를 보엿다.

금봉은 어머니를 존경하기때문에 종태어머니도 기생중에는 또 어머니 가튼 인격자나 아닌가, 하는 호긔심을 가젓다.

『인생이란 꿈이야. 한바탕 꿈이거든. 피로윈도 꿈이오 직거워도 꿈인데 무어 그리 애쓸것은 잇나. 그런저런 살아가지온』

하고 종태어머니는 시원시원한 소리로 금봉을 위로하여주엇다.

經濟解說

〃惡性인플레〃 어면境遇에생기나

(1)……申泰翊

요새 「惡性인플레」라는말이 流行되고 잇다 이것은 明年度豫算의編成을 앞두고 過般의高橋藏相의聲明을 비롯하야 財界人間에 惡性인플레가 念慮가 잇다 업다고 하는論戰이相當히 展開되고잇는것을 가리킨말이다 그런데 이惡性인플레라는것은 大體 어떠한말이나 고함을 알必要가 잇다 即첫재로 惡性인플레에對한說明 둘재로 이에對한 財界人의兩論을 들어서 말하고 끄트로 나의보는바를 붓치랴고 한다

×

惡性인플레라는것은 善性인플레에 相對性을 띄인말이다 그러면 먼저 이善性인플레라고함은 어떠한現象을 가리켜서 하는말인가 이것은 昭和七年으로부터 시작된 日本의인플레金을 가리켜서 하는말이다 即政府에서 發行한 赤字公債는 日銀이 引受하고 다시 이公債는 日銀으로부터 一般民間에 허러저오다 그래서 政府의赤字公債發行은 政府의 發出로써 日銀의 紙幣發行高가 膨脹되는 一面 인플레金昇氣로 因한 蓄積된 資本은 民間의 손으로 日銀이 引受한 公債가 消化되야 結局政府의赤字公債政策은 큰支障이업시 圓滑케되어왓다 그럼으로 赤字公債를 發行함에 잇서는 政府가 함부로 日銀에 公債를 引受케하야 通貨膨脹을 하게하는것이 아니라 이에對하야 赤字公債를 民間에서 圓滑히 消化함에 잇는나 업는나는 그限度를 恒常 살피면서 增發케되는것임을 알수가잇다 이와가티 政府의赤字公債를 圓滑히 民間消化가되는 財政인플레를 가리켜서 善性인플레라는 名稱을 붓칠수가잇다

×

그러나 赤字公債의增發에 相應한民間消化力이 缺케될境遇 即政府에서 赤字公債를 增發하드래도 이에對하야 從來와가티 이것을 民間에서 圓滑히 消化할힘이 업게되면 그때에는 이인플레를 가리켜서 善性을띄인것이라고 말할수 업다 따러서 日銀의紙幣增發은 結局에는 濫發로 몰수바게 업고 이런境遇의 인플레를 가리켜서 所謂惡性인플레라는말이 생기게되다 그럼으로 政府로서는 民間消化力의限度를 너머스는 赤字公債의 增發을 極力回避케되고 이에對한 警戒를 不怠하는 當然한일이다 그런데 惡性인플레가 생긴다고假定하면 그結果는 어떠한 現象이 생길것인가 即 民間消化의限度를 超越하는 赤字公債濫發로 생기는 現象인가를 이惡性인플레의 一名은 紙幣濫發이라고도 붓치게되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한것이냐고 하면 經濟界의 實勢를 無視한 紙幣의 氾濫임으로 實際에잇서 消費가 相伴되지안코 物價만 暴騰케되야 國家財政의 破綻 또는 一般國民生活上의 大威脅이 되고만다 이에對한 一例로는 歐洲大戰後 獨逸의 馬克濫發로 생긴 慘狀을 들게된다 이런때문으로 戰爭과가튼 非常時가 아니고는 어듸까지 惡性인플레에 안일르도록 政府가 인플레進行에 잇서서 그에對한 警戒가 嚴重케되는것이다。

×

그러면 오늘에잇서 日本財界는 어떠한가 高橋藏相의聲明에依하면 從來와 가티 赤字公債를 增發하야 惡性인플레念慮가 不無하다 그럼으로 公債漸減方針을 取케되는것이라고 말하엿다 이로서 赤字公債에 對한 民間消化의 限度는 이미 到達하엿는 그接近이된것임을 짐작할수가 잇다 따러서 藏相의態度에 對하야 贊成 또는 反對等의論戰이 비롯오 展開되고잇는것이다 그럼으로 오늘의日本財界情勢를 要約하야 보면 大體다음과 갓다

(一)現在以上 赤字公債가 增發될境遇에는 惡性인플레가 必至할것으로 인제부터는 健全財政政策으로 도라가자는意見

(二)惡性인플레는 戰爭과가튼 일이 업는限 안생길것임으로 赤字公債의民間消化力限度에對한疑念에 헤매지말고 繼續하야 赤字公債의增發로써 인플레景氣를 더욱 助長케할것이라는意見

(三)지금까지 繼續되어오는 인플레에잇서서 急激히 떼플레로도라스면 財界에 큰衝動을 주을念慮가 만타 그러타고해서 繼續하야 赤字公債를 增發하면 惡性인플레念慮가 잇다 그럼으로 高橋藏相은 그中間性을 取하는 公債漸減方針앞에 어듸까지 오늘의인플레景氣를 문허트리지 안케하고 一面으로 한거름 財政의健全化를 圖하라는意見等이 對立되어잇다

―(續)―

鍾紡과郡是工場이 絹紡에着手操業

이번엔明紬全滅?

다처밀니는大資本產業

卅八萬戶의家蠶絲業은勿論 農家副業에危機!

鍾紡 永登浦 全州工場及 郡是大田工場에서는 今番 絹紡을 大大的으로 計畫하야 벌서 試驗紡織을 끗마치고 機械設備를 進行中이라는데 郡是大田工場은 春秋 五十錘의機械를 設備하고 最近操業을開始하엿다는바 이絹紡의 由來는 數年前부터 日本內地에工場을든 鐘紡 片倉其他 諸會社가 南洋人의 衣服次로製造輸出하는外에 朝鮮에도 小量의 移出을 하고잇는데 이번에鐘紡 郡是가 朝鮮及滿洲에 大量供給을 目標로 着着計畫進行中이라는바 原料繭中에서 優良繭을 選擇하야 歐洲方面의 輸出生絲를 製造하고 其他 玉繭及屑繭을 原料로하야 大幅의絹紡을하며 또는 人絹과交織을하야 朝鮮固有產 明紬의代用織物을 製造하려는것이다。이絹紡은 外原料를 使用하는것과 大規模의機械施設에依하야 特殊한 製作을 하는것이니만치 明紬는 그와 到底히將應할수가 업슬뿐아니라 總督府農政當局者의 말을들으면 明紬는 必然 全滅되리라고한다 兩會社의 計畫이 完備되야不遠製品이 市場에 나오는날이면 器械製絲業을 除外한 全朝鮮三十八萬餘戶 絲數 三十七萬餘石 製造生絲高 八十七萬餘斤 그價額四百七十四萬餘圓에 達하는 小家蠶絲家는 勿論以上 製絲兼明紬生產을 하는 朝鮮人唯一의 農家副業은 悲慘히破滅되고 말것이라한다

春繭出廻激增이나 製絲原料三割不足

◇……共販百二十六萬八千貫

全朝鮮의 春繭出廻는 去二十日頃大體一段落을 告하야 共販出廻量은 百二十六萬八千五百十六貫에 達하고 前年에 比하야九萬六千五百二十九貫의 增加를示하얏스나 共販關係의 總釜數六千五百十二釜로 推算하면 一釜當二百十一貫밧게 안되어 普通一釜當 四百貫임으로 顯著한原料不足을 告하고잇서 製絲協會에서는 殺著一割의 操短을決議하고九月一日부터 實施키로 되엇는바 이一割操短은 職工의離散과生活을 考慮한것으로서 原料는三割以上의 不足이라한다

夏秋蠶種의 標準價格協定

夏秋蠶種의 價格協議는 過般의蠶種組合 聯合會에서 協議한結果 標準價格을

一、現金支拂 一圓二〇

一、八月末(共販代) 一、三五

으로決定하고 各道에서 協議中이던바 平北、咸北、忠南의 三道는 各各標準價格에準한 協定이成立되엇다

預金部資金 利率引下

運用會서決定

【電通東京電話】大藏省 預金部에서는 金利低下의 趨勢에伴하야 各種資金融通利率을 借替或은新規融通마다 引下하얏는데 三十一日의 運用委員會에서 決定된植民地關係에의 十一年度新規融通利率은 日本內地 金利低下에順應하야 一律로 引下를行하는同時에 日本內地의 高利債借替資金도 昨年度보다 五厘引下하야 日本內地年五分五厘 外地年六分의 高利債借替에 融通되엇는데 그範圍를擴張하야 朝鮮金融債券(朝鮮金融組合聯合會)과 臺灣州債는 本年度부터 새로이 債券에 加하얏다 融通利率引下를보면 植民地關係는 如左하다

朝鮮地方資金 本年부터三分八厘(二厘引下)

朝鮮產米增殖資金 本年부터三分八厘(二厘引下)

朝鮮肥料外資 臺灣止租貯藏資金 本年부터四分(五厘引下)

洋灰統制不進捗

小野田態度强硬으로

세멘트 統制問題는 法域外인朝鮮을 利用하는 小野田세멘트의 强硬한 態度로因하야 依然進展을보지못하고 統制委員會에서도

一、朝鮮小野田 세멘트의操短率

二、朝鮮에의 移出配定

(等)二點에잇서 小野田은어데까지 强硬하야 結末을짓지못하고 그前途가 자못注目되는터인데 右統制問題 때문에 渡東中인 三井物產 高月文店長代理는 三十日歸京 三十一日總督府殖產局을訪問하고 右에對한 經過報告及小野田의 態度에對하야 殖產局長 商工課長 同係 事務官을 各各 會見하엿다 問題의 朝鮮小野田의 操短은 小野田側에서는 朝鮮의 需給狀況을 再調査하라고 主張하야 流會를식혀 세멘트統制委員會는 九月上旬 再開하기로되엿다한다 結局 小野田은 聯合會復歸의條件으로 滿洲小野田은 滿洲國內의 諸세멘트會社와 滿洲의 聯合會 結成을 主張하야 日本內地 聯合會와 提携시키며 朝鮮小野田社는 最低 朝鮮需要의 七割以上의 配定要求와 操短免除의 要求를 하리라는데 朝鮮小野田社가 法域을 好條件으로삼어 操短免除를 主張하게된 背後에는 肥料 紡織等이 日本內地에잇서 現在統制가되여 企業狀態가 不便한것을보고 朝鮮이 右法域에 잇는것을 利用하야 最近漸次로 勃興하고잇는바 新興諸工業도 朝鮮小野田의 세멘트聯合會에의 去就如何에依하야 挫折될것을알기때문에 極力 朝鮮小野田社의 强硬態度를 支援하고잇는 現狀임으로 이에對하야 總督府의 態度는 자못 注目되며 結局朝鮮小野田社의 態度에 贊成하게되리라고도한다

茂山鐵鑛山

新鑛脈發見

茂山鐵鑛開發은 國策的見地로 昨年以來 三菱의손으로 探鑛을 進하야 山元의磁力選鑛設備도 進捗되엇는데 日前 總督府鑛山課에온 情報에依하면 同鐵山의 磁鐵鑛은 含有四十%로 約三億噸의埋藏으로 推定되고 選鑛處理를하야 六十%乃至七十%의鑛石으로서 製鐵所에 보낼터이며 探鑛의結果 六十一%含有한 大鑛脈을 發見한 模樣이다 右富鑛의埋藏은 아즉자세알수업스나 相當히 廣大한것으로서 右茂山鐵鑛에對하야서는 製鐵國策의立場으로 큰期待가잇다한다 過般來渡東한宇垣總督도 同問題에就하야서는 商工省과協議한모양인데 同鑛開發의最難關은 鐵鑛의搬出問題이다 現在朝鮮鐵道會社의古茂山、茂山鐵道가잇스나 同鐵道의 輸送能力은 三十五萬噸에 不過하고 北朝鮮開拓의 進捗으로 十五萬噸은 木材輸送에關하야 鐵鑛이開發된다면 現在利原二十萬噸의 出鑛으로보아서는 最低五十萬噸의 能力을要하며 이에應할輸送能力은 軍事的見地로잇서 宇垣總督의 折衝이잇서 大體朝鮮內設置로 內定하얏지만 增加키爲하여서는 約一千萬圓을 必要로하며 製鐵所의 分散建設即朝鮮內設置에對한 難關은 上記의 輸送問題解決에 잇는듯하다한다

米移出累計

七百八十九萬餘石 比前年卅一萬石增

◇……粟輸入廿萬石減

【一日總督府發表】七月中米移出은 五十二萬八千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十一萬餘石增、昨年十一月以後의 累計는 七百八十九萬九千石으로 三十一萬八千石增加이다 그리고 粟輸入은 十三萬三千餘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萬七千七百石增、昨年十一月以後의 累計는 九十五萬八千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十萬餘石減이다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工中央金庫

明年度부터實現

【電通東京電話】町田商相은 中小商工業의 金融難打開策으로서 商工中央金庫를 設立하기로되어 大體成案을 得하얏슴으로 明年度부터 實現을圖키로 되어三十一日商工省議에서 初年度政府出資額二百萬圓을 十一年度豫算案에 計上하고 大藏省에要求키로되엇다한다

經濟界消息

朝銀麗水支店開業 朝鮮銀行麗水支店은 今月一日부터 開業하고 同日附로써 支店課次席三谷俊博氏를 支配人에任命하얏다

○北鮮製紙第二工場新設 北鮮製紙의吉州工場은 來年七月廿一日이 竣工期限임으로 製品의賣出은 同年九月頃이될모양인데 同社에서는 更히 第二工場의 建設을 計畫코白頭山中心으로 林相調査를 進하고잇고 總督府에對하야서는 木材拂下申請을하얏다고

商況(一日)

株式 東新株는 少落

前場先高後低 米國財界好轉、高價取組重壓解消、下旬買易出組等으로 一齊高寄하야 東新 百三十七圓七十錢 日產六十八圓七十錢이 엇스나 高價에는 戾賣物이 優勢히 나와 反落裡에 結局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九十錢低인 百三十六圓二十錢 日產三十錢低인 六十八圓八十錢 朝新 二十五圓四十錢에 各大引되어 先高後低의不勢이엇고 帝人 百十六十錢、日鋼五十六圓 滿鐵六十三圓三十錢 朝鮮新二十七圓丁이 이엇다 十七圓五十錢 日鋼九錢

▲東新 一三六〇(寄) [illegible]

▲日產 六八七〇(寄) [illegible]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三十五圓八十錢 日產六十八圓七十錢 朝新二十五圓四十錢에 軟調寄後 閑散保合裡大引

上進難의市勢 戾賣物로또賣抑

八月市場에 對하야 은근히 期待가 적지안헛고 夏枯에 不似한 자미잇는 市勢가 나오리라고 期待하얏섯는데 大出超도感應性이어서 今一日前場은 齊高이엇스나 東新日產은 七十圓二十錢을 보이고 六十九圓十錢을 보인後 六圓臺의 低價로急落하엿다。이것을 軟派의 無理한 賣抑이라고 보는모양이나 買方에게 積極的으로 買進勇氣가 업고 强氣를 支援하지못하는데 因한것으로서 지금부터 가을市勢를떠돌어 보기는 尙早의 感이잇는터이다 八月은 明年度各省豫算도 提出되겟고 그全貌가 보이기 시작하야 膨脹豫算必至에 依한것을 動機로新市勢의 前哨戰이될는지? 或은增稅問題를 露骨的으로 悲觀賣込하야 所謂最後의 大底가 形成될것인지 이달의 市勢는자못 注目할만하다

强弱論戰激烈

米國財界好調 輸出貿易關係株過度悲觀訂正 低金利繼續 軍部豫算膨脹必至로 重工業株買氣誘發 惡材料總織入으로 免疫性 等에依하야 八月市勢는 惡目買로 進할것이나 歐洲金融恐慌 增稅念慮 輸出貿易前途悲觀 纖維工業株의 生產過剩禍等으로 米底入되것이라하야 買一貫할것이나 强弱論이 區區하며 자못微論을 …… 國家危機와 事業的危機를 지금市勢가 全部織入하얏는가? 國難과 經營難을 이미未然에 織入하야 鍛鍊이 完全히되엇는가? 今後에 걸처잇는 內外모든 不安과惡材料에 꼭작안할程度로 整理되엇는가? 압헤 내다보이는 所謂强材料라는것은 무엇인가? 弱氣의말하는 惡材料라는것이 이미 市勢에 織入되것이라면 强氣의 말하는 好材料라는것도 이미 織入되것이아니냐?

그러타면 市勢自體로 돌아가 이대로 上進키어려웁다면 機에觸할대로 賣氣가나올것이오 自信잇는 弱氣의 突込이 잇슬것이다

國家危機와 事業的危機를 ……

攻擊하되 …… 이에對하여弱氣는强氣를 攻擊하되

그러치것은 아니나 그러타고 元來 高低循環이 市勢의法則이니 그런後援하지 못한다 해동안 買한뒤이니 떠러저야 할것이라는데 지나지 못한다

論據는 分明치안코 다만 멧를 豫想하고 파는모양이나 그弱氣가 最後的 凄慘한 市勢를 豫想하고 파는모양이다

强弱雙이 區區하며 硬派는 如左히 말하고잇는터이데 …

立會時間繰上實施

取引證券部는 今一日부터 前場은午前九時二十分부터 後場은午後一時二十分부터 立會하얏는데 從前보다 十分繰上이다

大阪短期取組

	買方	賣方	取組高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物前取引場

實買高二百二十枚

▲여타파이新 六〇▲櫻田機械 一〇

米期 大下鞘發會

月初부터漸落步調

前場反落

今朝 阪地十月限은 二十九圓七十錢으로 百四十九丁下鞘로 東京은 二十九圓二十錢인 百三十丁下鞘로 發會될울딸아 當地는二十七圓九十六錢인 百三十九丁下鞘로 發會한後阪地稍漸低移로 四十九錢의最低로 止場할을傳하야 二節七十五錢으로 八十五錢까지 反戾하엿다가 六十八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續軟

後場은 二十七圓六十九錢에 一丁高로 始場後 五節六十錢에 續軟이고 區欄가리 止場하다

實米化關係로 當中은別問題

勿驚! 新甫十月限은 新米時代에 受渡되는 限米로서 百三十九丁의 大下鞘로 發會되엇다 本年의 稻作이 昨今과 如히 順調로나가는때는 此以上의 高價를 復키 難할것이나 그러나압호로 天災가잇는때는 例外의 高價를 示하는 一方當中은 近年稀有의 騰貴를見하게 될것이다 그런데此의 反映으로 本年의 稻作이 豐作을 告한다할지라도 當中兩限은 先限과의 開問題로 正米의 實勢와의 關聯이 엇지아니 할으로 渡米의 蒐集이 如意치못한때는 米作의 豐凶如何를 不拘

今後大勢一觀

昨年同期의 十月限은 阪地는 겨우十一丁下鞘當地는 六丁下鞘로 發會하엿슴에 反하야 本年은 阪地는 百四十九丁當地는 百三十九丁의 大下鞘로 發會되엇다 此原因은 昨年은 九限의 値頃이 阪地는 二十四圓三十錢臺로서 本年보다 六百六十丁下位에 잇섯고 當地는 九限의 値頃이二十四圓三十錢臺로서 本年보다 五百餘丁下位에 잇섯슴으로 値頃의 關係도업지안커니와 稻의作況이 昨年보다 良好하다는 樂觀說이 有함으로써이다 그러나 百四五十丁下鞘發會에 實買成은 警戒할必要도업지안커니와 압흐로 天災가 橫在한今日에 買方針은 더욱 時期尙早의 感이 업지아니하다 그리고 現實의 在米가 갈사록 品薄을 告하야 需給의 不安과 또는 渡米調達難의 嫌이업지아니함으로 當中은 依然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當限 買方	中限 賣方	中限 買方	先限 賣方	先限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場六感

株

期待하던 新甫도 月末一高도 업시 結局은 大保合圈의 揉合으로서千言萬言해도 保合二字에 盡한다

▲市勢는 何如間에 달린지 사흘이라도 갑이잇지못하는 機界이라하던지 하여야만하는 市場人

▲新甫商高를 보고 豪語하던 『夏枯와 가을 市勢라는 것은 조히(紙)한겹으로 一朝陰極이 되오래동안 鬱積하얏던 空氣가 한꺼번에 爆發되어 陽轉市勢를 形成할것이라』고 ▲ 그러나 買方에게는 아즉도 힘이 잇고 賣方은 米國財界好

米

今朝新甫十月限은 百十九丁의 大下鞘로 發會되엿다 그러나 此後의 買成은 警戒를 要치안흘수업는걸 ▲同前의 現象으로는 稻作狀況이 順調라할수잇스나 그래도 압호로 天災가 橫在한 今日에 買安心하지 못할것도事實 ▲

勢라는것과 七限의 짐을 버서노앗다는것박게 내세울것이 업고 出超까지 感應性이 적은러이니 이어서 一路上進의 活卓이못되고 戾賣로 抑壓▲近來 人氣沈鬱의 最大原因은 市場性이 적은株를 잔뜩 걸머진結果로서 여간 큰好材料가 나오지안는限 眞正한 好轉은 難望일듯

政府는 將次如何한 方針으로써 統制法을 運用할지 此가 注目處 ▲朝鮮의 政府保管米를 拂下한다는 說도잇스니此는何時에實現? ▲何如間政府도不遠한 將來에 拂下할것도 事實이거니와 拂下實施와共히 反落할것도 亦可知 ▲當地二十九圓의 現象으로보아서恢復은絕對無望 ▲그러나豐凶如何를 아즉確斷하지못하는 今日의 深入落도 亦難望▲宿月은 上勢一貫으로 終始하엿스니本月은 下勢一貫할 序幕?▲强氣側이 連戰連勝한다음인마큼 軟派의 雪辱戰이 展開되는光景

金融(一日)

◆海外經濟◆(卅一日) [illegible]

◆朝鮮銀行券◆(卅一日) [illegible]

◆日本銀行券◆(卅一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一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시카고期麥◆(卅一日) [illegible]

◆鍋油冲價◆ [illegible]

◆鰯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一日)

◆朝取短期◆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一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鮮期米賣買高◆ [illegible]

商品(一日)

◆大阪綿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一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 仁川在米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illegible] 銀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川崎造船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朝鮮石油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東拓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新材料待의모양으로 人氣不振이오 各債小高下의商狀이다

各地正米

京城反落

定期의 不勢로 買氣不振이오 氣配二十錢下放이 丸仁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 三十一圓八十錢

仁川下押

實物薄으로 人氣는 底堅하나 淸算新甫의大下鞘를 보고 買氣失望減殺되어 氣配二十錢下押인 ㊂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釜山一息

市場閑散 賣方은 値位低下로 賣치안으나 買方은 古米의 豊富로 極度買腰하야 僅히 一九〇以의 取引이잇섯다 商狀은 자못 閑散을 보히다

大邱保合

當地淸算의 漸落步調로 賣物의 處分賣物이 入하나 買新이 指値低로 取引이 不進하고 閑散裡에 保合이 角ㄱ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九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錢

群山反落

新甫의 大下鞘發會로 實行이 不振인데다가 買氣가 全혀 萎縮되어 市況不冴 이오 氣配三十錢反落인 ㊀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木浦不動

今朝도 日本內地在文이 全無하고 市中取引沓無의 閑散을示하나 淸算道其米拂底로 所持側의 持意强硬하야 氣配不變氣味인 ㊅多賑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丁 雄町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南浦不變

精米不足深刻으로 地方賣行이적고 强含商狀을 呈한 ㊉龜尾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 太平町 地方注文代金引換又ハ先金送料要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34